

발간등록번호
71-7530463-000001-08
ISSN 1976-8907

2013 Summer Vol.25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vol.
2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광주·포천·김포·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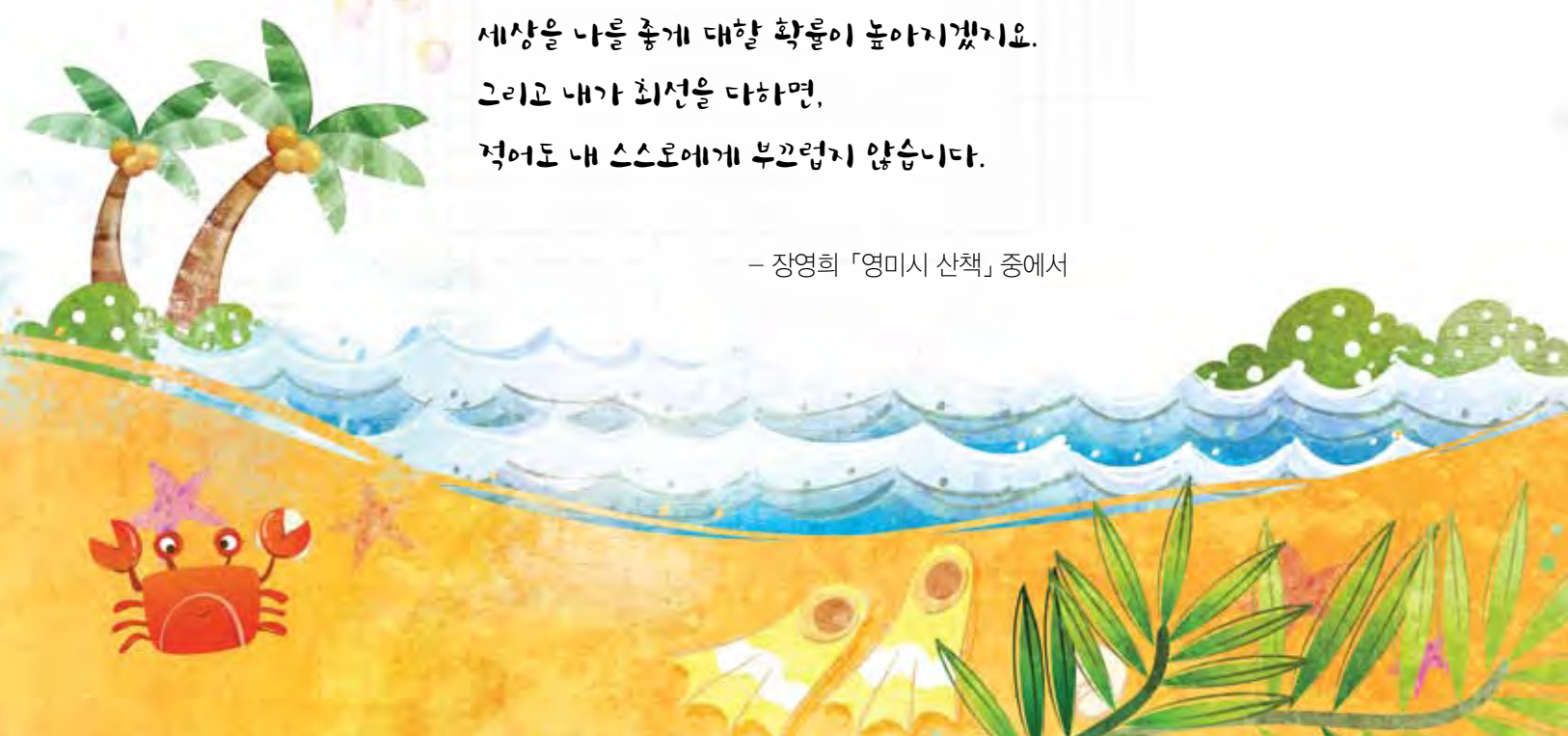
세상은 네가 보는 대로 응대한다

<정글 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아들에게 주는 편지에서

“인생의 비밀은 단 한 가지,
네가 세상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도 너를 대한다는 것이다.
네가 세상을 향해 웃으면,
세상은 더욱 활짝 웃을 것이요...”

내가 세상을 좋게 대하면
세상을 나를 좋게 대할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적어도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 장영희 「영미시 산책」 중에서





2013 Summer Vol.25

table of CONTENTS



발행인 신춘봉
 발행일 2013년 6월
 발행처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편집위원 박제연, 박소영, 김민지, 조선경
 노경아, 권미향, 최문형, 임유라
 전화 031,240,4032
 팩스 031,242,3062
 E-mail sy77@goe.go.kr
 디자인 효성인쇄기획

- 04 명사의 책 | 경기도의회 강관희 교육의원
- 06 화제의 작가 | 무라카미 하루키
- 08 책 VS 미디어 | 위대한 개츠비
- 10 학교도서관과 함께 해요
 성남정자초등학교 도서관 소개
 선생님이 권하는 책
 친구가 권하는 책
- 18 issue 도서 깊이 보기
 숲의 대화(문학)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자기계발)
 어떻게 살 것인가(인문)
- 24 Special Interview | 포천노곡초등학교 교장 김현철
- 26 책읽는 가족 소개 | 포천분관 이일선 가족
- 28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종합목록
- 30 행복한 책 읽기 속으로 | 일반 도서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 40 학교에서 함께 읽고 싶은 책 | 청소년 도서
 선생님과 우리들이 함께 읽어요
- 44 책이랑 나랑 | 어린이, 유아 도서
- 50 이용자가 선택한 즐겨찾는 책 Five | 일반, 아동
- 52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 고양 아람누리 도서관
- 54 독자와 함께 푸는 독서퍼즐
- 55 쉽터



상도 商道の 세화두

死·鼎·戒盈 孟子의 의미를 깨닫고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운영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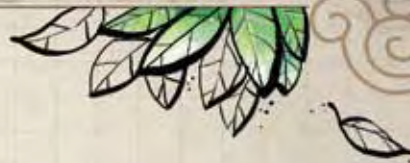
강관희



이 책은 200여 년 전에 실존했던 의주상인 임상옥을 소재로 쓴 소설이다. 임상옥은 우리나라가 낳은 최대의 무역왕이자 거상이었다. 그는 죽기 직전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는 유언을 남기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잠언과도 같은 이 선어(禪語)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물과 같이 평등한 재물을 독점하려는 어리석은 재산가는 반드시 그 재물에 의해서 비극을 맞을 것이며, 저울과 같이 바르고 정직하지 못한 재산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재물에 의해서 파멸을 맞을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책을 읽어 가는 동안 열하일기, 사마천의 사기, 논어, 금강경, 장자 등 고전의 주옥같은 구절들을 다 기억해 내지 못해 읽는 내내 메모를 했다. 소설을 읽으면서 좀처럼 기록을 하지 않지만 이 책에서 만큼은 감동 받았던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이었다. 그중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는 문장이 특별히 뇌리에 남는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믿음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임상옥은 商으로 쌓아올린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말년엔 시인이 되어 유유자적한 도의 삶을 품미하게 된다.



이 책은 죽을 사(死), 솥 정(鼎), 계영배(戒盈盃)라는 세 화두를 통해 이 시대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사고파는 일에 익숙한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진다. 현자는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며, 강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부자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욕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욕망의 자제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이야말로 하늘 아래 최고의 거부로 나아가는 '상도(商道)'이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잘못된 기업문화인 갑을관계로 세상이 시끄럽다. 잘못된 관행을 이 사회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결코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같은 사도(邪道)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상업도 공자가 말했듯이 '이(利)'보다는 '의(義)'를 추구하는 올바른 길, 즉 정도를 통해 바르기가 저울과 같은 상도(商道)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빈익빈 부익부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다가온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시장 통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자족할 줄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도를 보여준다.

이 글을 보면서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다(本來無一物).”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인연이 있었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고 마는 거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남에게 의를 베풀 수 있는 덕(德)이 있는가?”, “자신의 이(利)가 아닌 타인의 의(義)를 위해 행한 일이 있는가?” 반문해 보니 숙연해 질뿐이다.

지금 대학과 중등학교에 인문 고전 읽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인문고전 독서로 부유해 질 수 있고, 존귀한 바람이 될 수 있는 믿음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일찍 시작하여 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문고전을 통해 삶의 풍요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일본어: 村上春樹 (むらかみ はるき), 1949년 1월 12일~)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 겸 번역가이다. 1949년에 일본 교토 부 교토 시에서 출생, 호교 현 아시야 시에서 자란 하루키는 불교 승려의 아들인 아버지와 오사카 출신 상인의 딸인 어머니 밑에서 일본 문학을 접하며 성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서양 음악과 문학에 심취했다. 커트 보니벳이나 리처드 브로티건과 같은 미국 작가들의 여러 작품을 읽었으면서 다져진 문학적 바탕이 하루키를 다른 일본 소설가들과는 차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와세다 대학 문학부 연극과에 입학하여 드라마를 공부하던 중, 대학에서 아내인 요코를 만나 결혼하였고, 첫 직업인 레코드 가게 직원부터 시작해 커피점 겸 재즈바를 운영한 이력과 재즈나 클래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음악적 취향이 그의 작품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녹아있다.





하루키가 처음으로 소설을 쓴 것은 29살 때였다. 1978년 야쿠르트와 히로시마와의 경기를 도쿄 메이지 진구 야구장에서 보던 중, 외국인 선수였던 데이브 힐튼 선수가 2루타를 치는 순간 소설을 써야겠다고 문득 생각한 그는 1979년 단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군상 신인상을 수상, 본격적인 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1982년 첫 장편소설 《양을 둘러싼 모험》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으로 제4회 노마(野間)문예신인상을 수상했다. 1984년 《반딧불》, 《헛간을 태우다》 등 단편을 발표했고, 1985년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로 다니자키 준이치로상(谷崎潤一郎賞)을 수상했다. 1986년에는 《빵집 재습격》을 발표했고, 1987년 정통적인 연애소설 《상실의 시대》를 발표해 62만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하루키 신드롬을 낳았다. 1988년 《댄스 댄스 댄스》 발표에 이어 1990년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의 외국 생활을 그린 여행에세이 《먼 북소리》를 발표했다.

1994년 수필 《슬픈 외국어》, 장편 《태엽감는 새 연대기》 발표에 이어 1995년 인쇄매체 광고를 위해 광고문으로 쓴 《밤의 원숭이》, 1996년 수필 《소용돌이 고양이 발견법》, 1997년 《렉싱턴의 유령》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2005년 '뉴욕타임스'는 아시아 작가의 작품으로는 드물게 '해변의 카프카'를 '올해의 책'에 선정했다. 또 2006년에는 엘리프 데 엘리네크와 해럴드 핀터 등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이 받은 체코의 '프란츠 카프카상'을, 2009년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문학상인 '예루살렘상'을 수상하며, 문학적 성취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2009년에 발간된 《1Q84》는 하루키 문학의 결정판으로 평가받으며 일본에서 출간 2개월 만에 223만 부 이상이 팔렸으며, 출간 3개월 만에 2009년 일본 전체 서적 판매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소설에 등장하는 야나체크의 《신포니에타》와 체호프의 여행기 《사할린 섬》은 소설과 함께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하루키는 2012년에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고, 중국의 소설가 모옌에 밀려 수상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세계적 작가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장편·단편 소설은 물론 번역물, 수필, 평론, 여행기 등 다양한 집필 활동을 통해 상실감을 느끼면서 타인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사는 현대 젊은이들의 혼란을 그리고 있다. 올해 4월 일본에서는 그의 신작 소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의 순례의 해》가 출간되어 두 달 정도 만에 120만부 이상 팔렸고, 한국판이 7월중 출간 예정이다.

출처 | 위키백과, 두산백과 인물정보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글 |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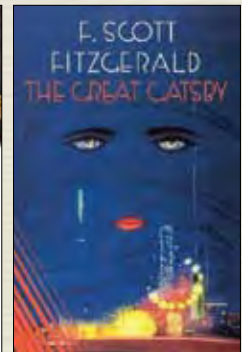
책 이야기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1925년작 소설 「위대한 개츠비」(원제: The Great Gatsby)는 1920년대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사회의 무력감을 묘사한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읽히고 있는 현대고전의 범주에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배경과 인물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관찰자로 등장하는 데이지의 사촌오빠, 닉 게러웨이의 자조적인 묘사를 통해 당대 사회의 무력감, 회의주의, 경멸감, 무책임성 등 혼란으로 뒤엉킨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한다.



미국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Automat Cafe, 1927)이 표지에 쓰인 국내 번역본



초판본 표지

주인공 개츠비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 데이지를 잊지 못하는 순정적 인물로 끊임없이 그녀에 대한 갈망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소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개츠비의 갈망은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고 있는 데이지일 수 있고, 어쩌면 그녀가 살고 있는 이스트에그(east egg)에 대한 동경인지도 모른다.

소설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주인공이자 한때 연인관계였던 개츠비와 데이지, 데이지의 남편으로 부도덕한 인물로 그려지는 톰, 객관적 인물이자 관조적 관찰자로 나오는 데이지의 사촌, 닉. 톰의 정부인 머틀과 멍청하게 그려지는 그녀의 남편, 월슨 등. 다양한 인물의 캐릭터와 각자가 형성하는 등장인물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흥미롭게 진행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개츠비의 죽음이라는 클라이맥스와 함께 톰과 데이지가 보여주는 이기적이고 부주의한 모습을 통해 작가는 독자에게 무거운 여운을 남긴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을 읽으며 재미있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소설 전반에 흐르는 1920년대 미국의 사회분위기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점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화려한 사교계와 재즈시대, 빈부의 극명한 대비 등 그 시대 미국사회의 독특한 정서를 느껴보는 것은 이 소설의 또 다른 묘미다.





영화 이야기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여러 차례 영화화 된 것으로, 여러 가지 버전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하나는 1974년 제작된 잭 클레이튼 감독의 영화로 로버트 레드포드와 미아 패로우가 주연을 맡았고, 원작에 충실한 영화로 평가받았다. 두번째는 2001년에 제작된 위대한 개츠비로 로버트 마코비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토비 스티븐슨과 미라 소르비노가 개츠비와 데이지로 출연한다.

또 다른 버전은 최근 국내에도 개봉되어 화제가 되었던, 바즈 루어만 감독의 '위대한 개츠비'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제이 개츠비 역)와 캐리 멀리건(데이지 역)이 주연을 맡았으며, 영화 '스파이더 맨'으로 유명한 '토비 맥과이어'가 극중 내레이터 역할(닉 캐러웨이 역)로 출연한다. 이 영화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감독 특유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감독인 바즈 루어만은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영화화하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로미오역으로 출연해서 당시 큰 인기를 모았다. 감독은 다소 뮤지컬적인 요소와 음악으로 원작의 느낌과 다른 새로운 자신만의 분위기로 영화를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위대한 개츠비' 역시 극 초반에 나오는 개츠비의 대저택에서 열리는 화려한 사교 파티 장면연출은 압권이다. 또한 상영전부터 영화속 등장인물들이 착용하고 나오는 의상과 악세사리가 화자되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으며, 2013년 프랑스 칸영화제(제66회)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이렇게 2013년에 새롭게 탄생된 '위대한 개츠비'는 영화상영전부터 떠들썩하게 세간의 관심과 매스컴의 조명을 받았다.



책 vs 영화

이렇듯 오래된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임에도 '위대한 개츠비'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은 늘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과 영화를 기대하지만, 오래된 고전속에서 발견하는 가치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1920년대 전후의 허망함과 매너리즘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반복되어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오늘날 사회분위기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은 소설속의 분위기와도 닮아 있으며, 세간의 관심은 오래된 것에서 현대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위안을 얻고자 하는 현대인의 갈망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오래된 소설이나 영화라고 하여 이 소설과 영화를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옛 것을 음미하고, 현대적 스타일로 재탄생한 고전의 귀환을 감상해 보길 바란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교보문고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성남정자초등학교 사서 백진환

세상의 중심!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가온누리 도서관'



1 행복한 학교도서관을 위한 기본 환경 마련

1. 교수매체 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환경조성

2009년에 학교도서관을 전격 리모델링하여 독립학습 공간인 모듬학습실을 구축하고 독서활동을 위한 브라우징 공간과 북카페 및 교사 연구실을 만들어 교수매체센터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실 2칸 반의 공간을 용도별로 구성하여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꾀하고 빔프로젝트, 정보검색용 PC 확보, 마이크 시설과 침단 실물화상기, 암막스크린 구비 등의 매체와 시설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활용교육을 도모하고 있다. 2011학년도에는 학교예산의 5%인 1,500만원 확보하고, 학교 공동체가 희망하는 신간도서 1,344권 구입, 전체장서 16,270권 마련 등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였다. 영어학습 기반 지원을 위한 영어도서 구축, 예절 선도학교로서 예절관련도서의 장서확충, 각종 도감류의 충분한 확보, 국어사전의 수준별 2단계 확보를 통하여 교수학습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학부모학교도서관 지원단 <책사랑>과 <책맘>운영

학교도서관 봉사모임 <책사랑>	책읽어주는 엄마들의 모임 <책맘>
60명으로 구성되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대출 반납 및 장서관리, 서가정리 등의 활동 담당	53명으로 구성. 책읽어주기를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4학년 총 25개 학급을 연 12차시씩 총 300시간 운영하고 있다.

3. 독서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활동

- 1) 북아트 연수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음
- 2) 자체 연수 : 좋은 부모 코칭 교육과 MBTI 연수 및 사서업무 연수
- 3) 월례회 : 월 1회 정기적 회의를 거쳐 책임어주기 활동 공유

4. 독서토론 동아리 <책누리> 구성

<책사랑>과 <책맘>으로 활동하는 회원들 중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회원들로 <책누리>라는 독서동아리를 조직하여 한편의 책을 정하여 읽고 월 2회 독서토론을 진행한다. 더불어 어린이들의 도서목록 선정작업도 틈틈이 하며 교과연계 도서목록도 구축중이다.

5. 어린이 봉사단 <GRC-Good Readers Community> 운영

6학년 어린이들 중 도서 봉사 동아리 <GRC>를 모집하여 한국십진 분류법 심화과정 배우고, 후배들 도서관 이용 돕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가온누리 도서관 연간 계획표

월	프로그램 및 운영	활	동	내	용
3	• 이용자교육 • 학부모학교도서관 지원단 연수	• 학부모 도서위원 조직 및 연수 • 신입생 대출증 제작	• 인증 도서목록 선정 • 전학년 이용자수업 진행		
7	• 도서바자회 • 여름독서교실 • 방학 프로그램 운영	• 도서바자회 실시	• 학년별 독서교실 진행	• 문화프로그램 진행	
8	• 방학 중 나만의 책 달력 진행	• 책 달력을 제작하여 도서관에서 1시간이상 책을 읽은 어린이에게 스탬프 찍어주기(많이 모은 어린이 시상)			
9	• 반딧불이 독서축제	• 학년별 독서주간 행사 – 〈작가와와 만남〉 및 독후활동 결과물 전시회 – 〈책으로 통하는 밤〉 운영			
12	• 겨울독서교실 • 방학 프로그램 운영	• 〈나만의 책 만들기〉 테마수업 • 독서교실 참여 인원을 선정하여 일주일간 특강			
1	• 방학 중 나만의 책 달력 진행	• 책 달력을 제작하여 도서관에서 1시간 책을 읽을 경우 1개의 스탬프 부여. (많이 모은 어린이 시상)			
2	• 장서점검 • 연간독서계획 수립	• 장서점검을 통해 폐기 및 제적을 하여 장서를 관리하고 파손 도서를 집중 수선함 • 연간독서계획을 수립			
연중	• 재량활동 실시	• 전 학급 월 2회 재량, 국어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도서실 이용 수업 권장			

3 독서교육 심화를 위한 행사 활동 전개

1. 반딧불이 도서관 축제

일주일간의 독서 축제를 통하여 1년 동안 쌓아온 독서실력을 예술적 작품으로 연결지어 개인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고, 독서골든벨을 통하여 평소의 독서실력을 가늠하며 수준 높은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늦은 9시까지 열리는 다양한 야간 행사를 통해 독서문화를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하고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학교도서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의 즐거움과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성취감을 통해 자아실현의 장이 되었다.



독서골든벨



나만의 도서관 가방 만들기

✦ 독서축제의 운영

- 대상 : 본교 재학생 모두
- 시기 : 해마다 10월 셋째주
- 세부일정표

번호	행사 종목	참여아동	대 상	시 상 계 획	비 고
1	• 독서골든벨	모든 아동	전학년	저·중·고 최우수 1명씩	
2	• 꾸러기 글쓰기	모든 아동	1~2학년		
3	• 책표지그리기 대회	모든 아동	1~2학년	영역별로 학급별 최우수 1, 우수 2 장려(2~3명)	
4	• 동시화전	모든 아동	1~2학년		
5	•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모든 아동	3~4학년		
6	• 독서신문 만들기 대회	희망 아동	4~6학년		
7	• 독서논술대회	모든 아동	5~6학년		교과와 연계한 문제 선정

✦ 반딧불이 가온누리 도서관 축제 오후 및 야간 행사

도서관 축제의 주제를 '책이랑 놀자! 도서관에서 놀자!'라고 설정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고, 오후 활동은 15:00 이후, 야간 활동은 19:00 이후 실시하였다.

날짜	오후 프로그램 (15:00~16:00)	야간 프로그램 (19:00~)
월	• 전통지갑 만들기 <부자가 된 삼형제>	• 글쓰기 특강 <책벌레들의 작가 되기>
화	• 나만의 도서관 가방 만들기 이용자료<가을운동회-임광희>	• 작가와의 만남 <가을 운동회>의 저자 임광희 선생님을 만나다
수	• 도자기 중 만들기 <나무 물고기>	• 북아트 특강 <포켓북 만들기>
목	• 나만의 도서관 가방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사전 활동) 이용자료<음식이야기>	• 작가와의 만남 <지하철을 타고서>의 저자 김영진 선생님을 만나다
금	• 토끼우드엑자 만들기 이용자료<나무 하나에>	• <책으로 통하는 밤> - 90분 빛그림 공연, 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원화 전시회 - 사계절 출판사 <가을 운동회>, 길벗어린이 <손톱깨물기>		

2. 여름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운영

여름 독서교실은 방학 중 5일간 독서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문화교실 4일간, 만들기 과정 4일간, 이야기과정 3일간, 영화감상 2일간 10:00부터 12:00까지 하루 2시간씩 운영하였으며, 총 400여명이 참여하여 독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관심 및 실생활에서 독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여름방학 독서교실

일시	차시	시 간	인원	프로그램	활 동 내 용	준비물
월	1학년	10:00~12:00	50명	터널북 만들기	〈터널〉, 〈앤서니브라운〉을 읽어 주고 나만의 터널북을 만들기	트레이싱페이퍼 크레파스
화	2학년	10:00~12:00	50명	미니 병풍 만들기	〈꽃신찾아 우리집 한바퀴〉를 읽어 주고 옛날의 생활용품을 소재로 나만의 미니병풍 만들기	머메이드지, 한지, 먹물, 네임펜, 끈
수	3학년	10:00~12:00	30명	전등갓 만들기	〈그림자는 내친구〉를 통해 그림자에 대해 학습하고 그림자 원리를 이용하여 전등갓을 만들기 활동	트레이싱지, 티라이트 샤아레,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목	4~6학년	10:00~12:00	30명	봉숭아 엽서 만들기	〈행복한 봉숭아〉를 읽어 주고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 및 엽서 만들기 활동	머메이드지, 봉숭아 꽃 물, 반창고, 명반



북아트교실



작가와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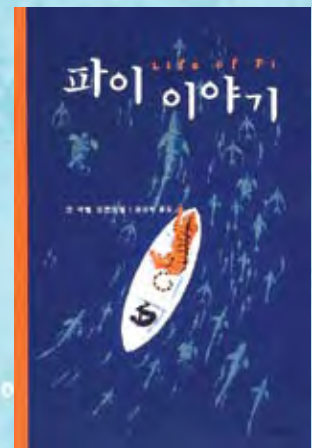
작품전시회

성남정자초등학교 가온누리 도서관은 우리 어린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 학교도서관이 담당해야 할 사명과 비전을 다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다양성 및 다원성을 추구하며 창의적 운영을 추진한 바, 도서관 활용율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가는 전통적 개념의 도서관 운영에서 탈피하여 학교 내에서는 배움 중심 학습센터로서, 지역사회에서는 문화가 소통되는 곳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열매로 교육과학부가 주관한 제1회 독서교육 대회에서 본교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올바른 독서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하나 되어 학교도서관을 운영한 결과 독서의 생활화, 내실화를 실천하는 가온누리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성남정자초등학교 가온누리 도서관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생활속 독서지원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새해에는 방과 후 독서학교를 신설하여 NIE강좌, 북아트 강좌, 글쓰기 강좌를 신설하여 생활속 독서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파이 이야기]

하남중학교 교사 정준희



안 마텔 / 작가정신 / 2004 / 400p.

살이란! 그 자체가 종합선물세트이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과도 같겠지만) 참으로 다양한 맛이 존재한다. 씹쓸한 맛, 달콤한 맛, 비린 맛, 너무도 써서 눈이 꼭 감겨지게 하는 맛, 신맛, 짭맛 등 언어로 형용하기조차 힘든 맛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존재한다. 속을 알 수도 없고,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도통 가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단맛인지 어떤 게 쓴맛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에잇! 모르겠다.” 하고 무심코 집어든 부분이 쓴맛일 경우 우리는 좌절과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운 좋게도 단맛일 경우 때 아닌 행복감에 젖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된다. ‘뭐야 그럼! 인생은 흔히 말하는 복불복이란 말인가?’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우리의 기분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속았다는 억울함의 깊은 터널 속으로 내동댕이쳐진다. 하지만 선물이란 자체가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인생의 맛들은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쓴맛을 느껴야만 바로 단맛의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치가 바로 여기서 태어난 것이다.

『파이 이야기』는 일전에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되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바 있다. 화려한 영상과 3D 컴퓨터 제작의 스펙터클함은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되었고, 보는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도취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영화를 보기 전에 책으로 이 이야기를 먼저 접해서 그런지 영화를 보는 내내 왠지 모를 아쉬움과 적적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무한대의 감동이 딱 영화의 화면만큼으로만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책이 주는 그 광활한 감동을 영화가 채워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에 난 언제나 나의 표를 던질 수 있다.

학생들이 도서관에 찾아와 그 뭉클뭉클한 꿈이 가득한 눈으로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 난 자주 『파이 이야기』를 추천해주는 편인데, 그 이유는 바로 ‘파이’라는 한 아이의 인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복잡한 감정을 종합선물세트처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도 손꼽히는 『파이 이야기』는 열여섯 살 인도 소년 ‘파이’가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사나운 벵골 호랑이와 함께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227일 동안 태

평양 바다를 표류한 이야기이다. 안전한 호화 유람선에서 1주일만 있어도 쉽게 흥미가 떨어지는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면, 태평양 한 가운데! 그것도 227일 동안이나 표류한 파이... 이 사실 자체가 책을 놓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자, 독자의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

‘파이’라는 소년은 그 나이 또래가 그렇듯 순수한 열정으로 반짝이는 아이이다. 마음이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은 ‘파이’에겐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물들이 모두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그 자체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책의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신(神)을 그저 사랑한 이유로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한꺼번에 믿게 된 파이의 열혈 종교 탐험기를 접해볼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문득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를 따라 절에 가서 느꼈던 불교의 평화로움과 고요함, 친구에게 이끌려 간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느꼈던 천주교의 엄숙함과 고귀함, 그리고 단지 교회 목사님이 멋있어서 열심히 다니게 되었던 기독교의 편안함과 즐거움들이 모두 떠올라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다. 그 때는 그 모든 것이 존재 자체로 내게 다가왔었고, 나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힘들게 고민하지도, 머리 아프게 분석하지도, 득(得)과 실(失)을 따지지도 않았다. 그냥 세상 자체가 신기했고, 삶 자체가 즐거웠으며, 주변 사람들 자체가 나에게서 빛이 되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파이’처럼 느껴졌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파이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발생한다. 인도의 상황이 불안해지자 아버지는 운영하던 동물원을 팔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정든 친구들과 사물, 자신이 사랑하던 신(神)들과 슬픈 이별을 하게 된 ‘파이’... 거기다 그 가족과 동물을 태우고 캐나다로 가던 화물선의 침몰... 어린 ‘파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 와중에 ‘파이’는 자신에게 늘 두려움의 존재였던 벵골 호랑이와 하이에나, 오랑우탄, 얼룩말과 함께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사나운 하이에나가 부상을 입은 얼룩말과 오랑우탄을 잡아먹고, ‘파이’를 공격하려고 할 때 보트에 숨어있던 호랑이가 하이에나를 잡아먹게 되면서 결국 ‘파이’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에서 호랑이와의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실감나게 묘사되었는지 그야말로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을 쥐어가며 밤새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결국 ‘파이’는 자신 안에 소용돌이치던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본능을 검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호랑이를 어떻게든 길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삶을 다시 개척하고, 내적인 성숙과정을 아주 처절하게 이룩하게 된다.

한 번에 쉽게 익은 김치가 깊은 맛을 내지 못하듯이, 급하게 성숙해버린 인간 또한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만큼 「성숙」이란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야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는게 아닐까? 지금도 저마다의 고통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파이’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꼭 추천해주고 싶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남중학교 학생 김아영



이승복 / 황금나침반 / 2005 / 328p.

어느 날 내 인생의 큰 희망이었던 꿈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까... 절망과 슬픔에 잠겨 어 하루하루를 보낼까? 아니면 희망을 잃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며 새롭게 도전 할까?

아마도 나는 전자(前者)쪽에 속할 것 같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이면서도, 커다란 희망을 잃고 하체를 영영 못쓰게 되었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섰다. 그리고 다른 꿈을 꾸게 되어 그 꿈을 이루었다. 그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이승복이다.

이승복은 여덟 살에 이민을 갔다. 하지만 그곳 생활은 편치 않았다. 부모님의 바쁘신 생활, 외국 생활의 낯설음... 그렇게 위태롭게 살아가던 중 이승복은 자신의 조국과 부모님을 위해 체조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연습해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는 훌륭한 체조 선수의 꿈을 갖게 된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승복은 열심히 체조 연습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열심히 연습을 하던 중 크게 다쳐 사지마비라는 장애를 갖게 된다. 나는 '만약 연습 때 다치지 않았으면 이승복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내 생각에 이승복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단한 체조선수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승복은 미국에서 체조 코치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고, 이승복 또한 미국대표선수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승복은 더 이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자신의 커다란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와르르 무너졌으니 크게 절망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승복은 슬픔을 딛고 일어섰다. 이승복은 자신의 희망이었던 체조선수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크게 슬퍼했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병원 간호사와 그 밖의 관계자들의 도움과 자신의 의지로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 크게 힘들고 슬펐을 텐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이승복에게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또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말이다.

아무튼 이승복은 처음에 손가락도 못쓰고, 몸들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를 타고 자신이 직접 이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그는 의사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된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 SAT 시험에 합격하고 뉴욕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주변사람의 응원과 힘을 얻으며 결국 의사가 된다. 정말 놀랍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승복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이승복은 자신이 가진 불편함도 잊은 채 의사가 되어 열심히 환자를 치료한다. 그리고 예전의 자신처럼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힌 환자도, 큰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환자들도 이승복으로 인해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이승복이라는 의사 한명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희망이 생기고 슬픔과 절망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나도 이승복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나의 커다란 희망이 무너져 이승복처럼 빨리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냥 죽을 때까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내 인생을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승복의 이야기를 읽고, 나도 이승복처럼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 지금의 내 건강한 몸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의 미래를 보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만이었던 일들도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만약 어딘가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으며,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숲의 대화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하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김관혁

오랜만에 단편소설집을 읽었다. 장편소설처럼 아주 치밀하고 극단적인 갈등은 없지만, 여기에 실린 여럿 단편들은 삶의 어두운 소재들을 섬세하면서 재미있게 구성하고 있다. 11편의 단편들은 짧지만 내면의 감동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숲의 대화》는 정지아 작가의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봄날 오후, 과부 셋》, 《목욕 가는 날》과 일본에 번역된 《핏줄》 등을 포함하여 총 11편의 작품을 묶은 책이다.

이 소설집은 치매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인생 밑바닥의 11가지 이야기를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그려내고 있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디고, 받아들이고, 끝내 살아가는 뻣속 저릿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소재이다.

첫 편인 《숲의 대화》는 영감 운학이 아내가 묻힌 잣나무숲에서 60년 전에 죽은 동갑내기 도련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봄날 오후, 과부 셋》은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평생 친자매처럼 의지하고 살아온 세 과부 할머니의 봄날 나들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천국의 열

쇠》는 중증장애인인 ‘그’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일군 헛개나무 과수원에서 가련한 베트남의 여인, 호아를 숨겨주는 이야기다. 《목욕 가는 날》은 “가시내야, 너는 엄마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궁금하도 않나?” 생색내기 좋아하는 언니의 전화 한 통에 중년이 된 ‘나’와 엄마, 언니가 함께 목욕 가는 이야기다. 《브라보, 럭키 라이프》는 천금 같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자, 무려 23년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들의 재활을 위해 삶을 바치는 노부부의 이야기다.

《핏줄》은 마흔 너머까지 장가를 못 간 한산 이씨 27대 종손을 외국인 여자와 결혼시킨 집안의 이야기다. 《해화동 로터리》는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세 노인의 반세기 우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끝없이 땅속 깊은 곳에 묻힌 암반을 캐는 남자의 이야기 《인생 한 줌》은 한평생 몸 바친 일이 허망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인생조차 가치가 없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글을 쓰기 위해 시골로 내려간 전직 기자의 전원 생활을 그린 이야기 《즐거운 나의 집》은 귀농을 결심한 도시인이 농촌 사회에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



해관계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이야기를 감칠맛 나게 그려냈다. 《나의 아름다운 날들》은 전직 고위층 간부의 아내 김 여사가 입주 가정부와 벌이는 팽팽한 자존심의 대결을 구성했다. 마지막 편인 《절정》은 갑자기 사라진 한 노숙자의 이야기를 통해 끝없이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그려내지만 그의 삶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은 대부분 절망 속에서도 간절한 소통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네 번째 이야기인 《브라보, 럭키 라이프》는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막내 아들을 노부부가 무려 23년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재활을 위해 삶을 바치는 이야기다.

의사도 포기한 막내 아들 ‘경우’는 15년 전 기적처럼 눈을 떴고, 23년 만에 한쪽 팔을 움직였다. 첫째 아들이 돈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 닥쳤음에도 노부부는 한번도 ‘경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한다. 이미 재산이 바닥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아들’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눈물겹다. 이렇듯 겨우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의 희망을 소박하고

도 절박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무거운 이야기로 다루고 있다고 해서 슬픈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자연스레 번진다. 할머니들의 재밌고 유쾌한 대화들, 몸은 장애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선하고 건강한 남자, “가시내야, 너는 엄마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궁금하도 않냐?”의 말처럼 귀에 착착 감기는 전라도 말투 등... 일상을 정감 넘치게 구성하면서 다소 어두워질 수 있는 부분을 재미나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심히 일상을 스쳐 지나간다. 그 속에서 힘없고 뻥 없는 사람들의 아픈 구석을 보듬고 살아가는 관계가 공동체의 삶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춧돌인 듯 하다. 이 책을 통해 일상 속에서 나와 주위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과거를 거울삼아 다가올 미래의 현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현실의 존재하는 것들의 고귀함과 삶의 의미를 되돌아 보자.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평화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권미향



우리나라에는 ‘말로 천냥 빛도 갚는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 말을 공손하고 조리 있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말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모든 인간관계가 말로 이루어지고 말로 끝난다.

대화를 통하여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으며, 잘못된 대화를 통하여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

고백을 할 때도, 사회에 나가 직장현장에서도, 부모와 친구와 소통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한다. 이 대화는 시작과 끝을 이루고 한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엄청난 행위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의 부적절한 상황, 또는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으로 돌변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등을 접할 때마다, 무엇이 잘못일까 고민하는데, 그 모든 핵심은 대화라는 것이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화법을 잘 설명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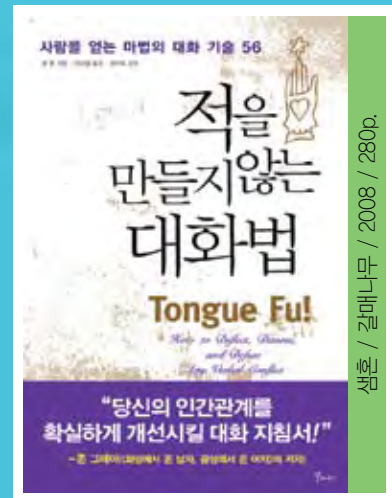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 ‘샘 훈’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며 미국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강연, 워크숍, 저술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NASA, 휴렛 팩커드, 포 시즌즈 리조트 등 미국의 유수한

기업 등에서 50만 명에게 강연을 해왔으며, 2003~2004년에는 ‘뛰어난 강연자상’을 받기도 하였다. 《POP》, 《엘리베이터 스피치》, 《Conzentrate》, 《What’s holding you back?》 등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써 호평을 받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이를 ‘텅후(Tongue Fu)’ 기술이라 명명했다. 쿡후가 신체적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라면, 텅후는 심리적 공격을 막아내는 정신적 무술이다. 누군가 공격을 해왔다 해도 마음과 입을 잘 다스려 언어적 모욕을 당하지 않고 자신있게 행동할 수 있게 돕는다. 남들을 말로 싸워 눌러 이기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단지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기 보다는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말로 슬기롭게 풀어나는 법을 알려준다.

책 구성은 크게 4부로 나뉜다.

1부 우아하게 이기는 방법, 2부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3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는 대화의 기술, 4부 사람을 얻는 대화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상황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사례, 명언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쉽고 공감되게 구성되어 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적이 되거나 내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서로 마음상하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방법,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설득시키는 방법. 부부나 가족,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 중에서도 서로 상처 받지 않으면서 평화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알기 쉬운 예시로 알려 주고 있다.

회의 또는 대화를 하다가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 버럭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 눈물부터 나오는 사람, 언쟁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사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빛만 붉으락푸르락 하며 말을 더듬는 사람, 한마디도 못한 채 깊은 상처만 받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등 그 모습이 정말 다양하다.

사실 화나는 상황, 갈등이 생기는 상황, 언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니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우리는 매우 서툰 편이다.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며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느 누구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싸우거나 분노하지 않고도 우아하게 이길 수 있는 고품격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을 몇 가지 소개해 보면,

첫째, 언어적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는 여유 갖기 **둘째**, 침묵은 세련된 말보다 더욱 큰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남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표현만 사용하기 **넷째**, ‘하지만’ 대신 ‘그리고’ 사용하기. **다섯째**, ‘이렇게 했어야지’라는 말은 아예 사용하지 않기 **여섯째**, 주변의 누군가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실수를 가차없이 처단하는 냉혹한 사람이 아닌, 실수에서 배울 줄 아는 겸손한 사람되기. **일곱째**, 슬픔과 고민에 빠진 사람에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기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제 대화법에 적용한다면 책 제목처럼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좀 더 부드럽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실천서들이 그렇듯 이 책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 책은 읽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에 한번쯤은 가볍게 읽어보기를 권한다. 꼭 실천하지 않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계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이민섭

‘어떻게 살 것인가’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계를 은퇴하면서 출간한, 제목에서부터 인문학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책이다. 저자의 정계 은퇴라는 도서 외적인 이유도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힐링이라는 기존의 출판 트렌드 이후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의미를 고민하고 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화젯거리를 낳았다.

저자는 책 서문에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론은 모두 잿빛이며, 영원한 생명의 나무는 푸르다’를 인용했다. 보통의 지식인들은 자신이 익힌 이론에서 삶을 규정하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론으로 삶을 재단하기 전에 자연스러운 욕망, 충동, 소망, 이상, 감정 등 우리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저자는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 충동과 같은 것들을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뜻으로 괴테의 문구를 인용하였고, 책 전체에서 이러한 느낌을 담고 싶었다고 말한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인가, 의

미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삶의 모습과 방식은 참으로 다양하고, 어떤 특정한 삶을 다른 삶보다 더 훌륭하다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훌륭한 삶은 ‘나의 삶을 대하는 내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지금 나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제쳐두고 정말 내가 기쁨을 느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해보길 권유한다. 다음은 이것과 관련하여 저자가 책에서 묘사한 대목이다.

“인생의 성공은 멀리 있지 않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그것을 남들만큼 잘하고, 그 일을 해서 밥을 먹고 살면 최소한 절반은 성공한 인생이다. 돈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해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또는 사회의 평판 때문에 즐겁지 않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그 인생은 처음부터 절반 실패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꼭 즐겁지 않더라도 최소한 괴롭지 않은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

이 책의 제2장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다소 무겁고 어두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실 저자가 이 책을 처음 집필할 당시 책 제목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였다고 한다. 삶에



대한 위로보다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한 번 고민해보자는 저자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밝고 좋은 일도 많지만, 피해갈 수 없는 쓰라림과 고독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쓰라림과 고독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없다면 자신의 인생을 올바로 직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망각하고 자꾸만 삶의 어두운 측면을 밀어내려고만 하는데, 그렇기에 그들은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이 장에서 저자는 우리의 삶이 근원적으로 갖는 양면성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라고 독자들에게 말한다.

저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로 정리했다. 우리는 놀이와 일과 사랑만으로 인생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것만으로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온전하게 느낄 수 없다. 타인의 기쁨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함께 사회적 선을 이루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저자는 연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연대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유쾌하게 만든다. 다음은 연대에 관해 저자가 책에서 묘사한 대목이다.

“연대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때 나는 잠깐 딴 데 봐야지, 하려는 순간 불편함이 생긴다. 연대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나쁘다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연대는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지금까지 저술해온 교양도서와 달리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통찰하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였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저자와 자신들 간의 깊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여러 관념들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찬찬히 되짚어 보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나이 지긋한 부모가 먼저 읽고 어린 자녀에게 권하게 되고, 반대로 어린 자녀가 먼저 읽고 나이 지긋한 부모에게 권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청년의 고민과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중년의 고민이 함께 녹아있는 이 책은 두 세대가 서로 마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

포천노곡초등학교 김현철 교장선생님

이번호 스페셜 인터뷰는 한 독자로부터 추천받아 직접 포천노곡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경기도내 초중고를 다니시면서 독서교육 강의를 하시는 독서교육의 전도사이며, 책임기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하고 가르치시는 김현철 교장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 봅니다.



소개 학력: 전주교육대학교, 대전대학교대학원
경력: (현) 포천노곡초등학교 교장
(현) 포천시정책위원, 포천미래포럼교육위원장, 포천포럼자문위원
저서: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십', '손자병법의 재발견, 손자에게 리더십을 배우다' 등

Q 교장선생님께서 현재까지 만 오천여권이 넘는 책을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책 읽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독자들에게 알려주세요.

A 동양철학을 공부하시고 항상 책을 읽으셨던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3천 여 권 정도의 책이 꽂혀있었던 아버지의 서가에는 일본어로 된 동양철학 서적 외에도 동서양 문학, 그리고 현대문학, 사상계 같은 잡지들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버지의 동양철학과 저의 서양철학이 맞부딪히는 토론도 많은 독서를 지속하도록 하는 촉매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독서가 독해력을 높여주고 폭넓은 기반지식을 제공하여 학습에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주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

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독서의 효과는 '삶의 지혜와 통찰력洞察力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판단을 하는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보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해집니다. 독서가 부족할수록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기 쉬운데, 경험을 통한 학습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습득한 것일 뿐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는 자신의 경험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타인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며 가장 쉽고 유용한 방법이 독서입니다. **시공의 한계를 초월하는 타인의 지혜를 빌려 자신의 경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독서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Q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읽으시는지,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 가장 인상깊은 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 인생의 한권의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인가요?

A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문학 등 가리지 않고 읽는 편이지만 동·서양 철학 서적을 주로 읽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프랑스 현대철학자 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과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공저 『천 개의 고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최근 읽은 율곡 선생의 『성학집요聖學輯要』도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싶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준 책입니다. **‘내 인생의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맹자孟子』를 들겠습니다.** 맹자가 스스로 실천해보였던 이상적인 인간상인 ‘대장부大丈夫’는 제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또한,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존재, 개인의 이익보다는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성패는 리더가 인仁和 의義를 실천하기 나름이라는 맹자의 메시지는 지난 10여 년간 여러 위치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오신 동안 저를 든든히 지켜준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든 리더들에게 정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Q 포천노곡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책 1천권 읽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독서능력이 매우 향상되었고, 그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도입 계기와 교장선생님만의 독서교육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우리 학교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독서교육은 우연한 일치일뿐 사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독서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학원에 가는 대신 모두가 열심히 독서를 하겠지요. 사실 독서는 정독과 독후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서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정독은 힘든 일이며, 지나친 독후활동은 독서에 흥미를 잃게 하거나 독서와 독후활동 중 무엇이 중요한지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독서교육은 교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서가 밥을 먹고 공기로 숨쉬는 것처럼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자유롭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식견이 삶의 폭을 넓히고 뛰어난 리더를 만듭니다. 천 권이라는 목표는 가능하면 많은 책을 읽자는 상징적인 목표일 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Q 멀티미디어와 각종 전자기기들로 책읽기가 더 어려워지는 요즘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읽기 습관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부모로서의 자세나 마인드를 알려주세요.

A 전술한 것처럼 가장 좋은 독서교육은 ‘독서교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센터, 교육청, 학교 등 여러 곳에서 독서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책을 읽힐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책은 ‘읽히는’ 게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려면 아이 스스로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 즐거움을 깨닫도록 해주지 못한다면 평생의 독서가를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답이 간단합니다. TV와 컴퓨터를 치우고,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등 독서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도서관과 서점에 자주 들르고, 부모가 먼저 매일 책읽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교실에 자신만의 서가를 마련하고 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지요.

Q 마지막으로 학교 독서교육에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A 다시 말씀드리자면 독서는 ‘교육’이 아니라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 문화의 중심에는 학교장이 있고요. 학교장이 책을 읽지 않으면서 선생님들에게 독서교육을 강조하거나 아이들에게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면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어른들의 행동은 곧잘 모방한다. 최근 도서관, 상공회의소, 교육청, 학교 등에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강좌를 통해 인문 고전의 독서 및 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교육계에서부터 서로 경쟁하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하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책에서 해답을 찾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이일선 가족



정약용은 18년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집으로 서신을 보내곤 했다.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학문과 독서에 힘을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어떤 인물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다만, 두 아들들이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바라는 마음은 독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된 자로서 독서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아이 스스로 책을 좋아하길 바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일이다. 더구나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물론 타고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되겠는가?

아이를 임신하면서 다른 부모들처럼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많은 교육서를 찾아 읽었다. 덕분에 독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책을 많이 읽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최희수의 《푸름이 영재로 키웠어요》와 진경혜의 《나는 리틀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키웠다》는 나에게 강한 인상과 실천을 하는데 커다란 매개 역할을 한 책이다.

백일도 안 되는 아이를 앞에 놓고 형겅 책과 짧은 동화책 등을 열심히 읽어 주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하루 열 권 이상 매일 읽어 준다는 건 과히 쉬운 일은 아니다. 책 읽어 주는 것이 차츰 시들어질 무렵 접한 위의 두 책은 강한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물론 책 속의 주인공들은 영재나 천재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영재나 천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어 주는데 나라고 못할까 싶었다.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가장 최우선시 했던 것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집안이 조금 지저분해도 말이다.

사실 책 속의 엄마만큼 아이에게 많은 책을 읽어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혼자서 책을 읽기까지 하루에 열권 이상 읽어주려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리 자극을 받은 두 권의 책도 둘째 아이에게까지 실천할 여력은 주지 못했다. 현재 큰 아이는 초등 6학년, 둘째는 2학년이다. 비록 포천이라는 소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큰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학교 성적을 잘 받아 온다. 독서의 효과라고 믿는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으로부터 책읽는 가족으로 선정되었을 때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한 번쯤은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부끄럽기는 역시 마찬가지다. 큰 아이는 이제 책을 잘 읽으려 하지 않는다. 얼마 전 사준 스마트폰이 문제다. 큰 아이를 위해 나는 또 다른 책을 집어 들어야 할 것 같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어 주었는데도 스마트폰 하나에 워르르 무너지다니. 스마트폰이 없으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런 세상이 오리라 기대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하지만 정작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대학생이 된 자녀들이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때 책을 등한시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제는 어떻게 다시 도서관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고 스스로 관심분야의 책을 찾아 읽게 하느냐가 문제다.

다행히 책을 열심히 읽은 효력은 아직 지속중이다. 관심 있는 책은 아무리 두껍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읽어낸다. 독해력도 과히 나쁘지 않다. 또, 책 읽는 재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희망을 걸어본다.

이말순 가족 추천도서

거미소년 우기부기 / 김경민 / 웅진주니어
분청, 꿈을 빛다 / 신현수 / 푸른책들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이매진
다산의 아버님께 / 안소영 / 보림
행복한 1등 독서의 기적 / 김홍식 / 서해문집
푸름이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 최희수 / 자유시대사

독서의 길잡이를 하는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은 나에게 아주 든든한 뱃이다. 종합자료실에서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벅찬 가슴으로 가벼운 흥분마저 인다. 마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처럼.

시립도서관도 새로 생겼지만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은 마치 안방처럼 내 집 같은 느낌이 강하다.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어렸을 때부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에 길들여진 탓이다.

주말을 이용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나들이를 오는 건 어떤가? 놀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놀게 하고, 학원 대신 도서관으로 보내보는 건 어떨까? 물론 그 옆에는 당분간 부모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이의 꿈은 이제 작가로 바뀌었다. 여섯 번째 꿈이기는 하지만. 작가가 되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한다고 말해주었다. 저학년이어서 그런지 도서관에 책 읽으러 가자는 내 말을 잘 따른다. 스마트폰이라는 복병이 멀리서 기다리지만 더 많은 발도장을 도서관에 찍어 놓으면 관찰을지도 모르겠다.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기간 : 2013년 3월 ~ 2013년 6월

일 반

분야	도 서 명	주 제	저자명	출판사	추천인
문학	도르와 함께한 인생여행	시간의 소중함	미치 앨봄	21세기북스	중앙 신수연
	서른 넘어 함박눈	인생과 연애의 쓴맛	다나베 세이코	포레	포천 이민섭
	세상에 예쁜 것	인생의 성찰과 지혜	박완서	마음산책	여주 김세영
인문	하워드의 선물	후회없는 삶을 사는 12가지 지혜	에릭 니노웨이 메릴 미도우	위즈덤하우스	여주 최문형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 하는가	마음의 건강을 얻는 방법	카루나 케이턴	북돋움	김포 정은성
	화에 대하여	화에 대한 철학적 사색	루키우스 안나우스 세네카	사이	중앙 엄영남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	현대를 창조한 사람들	전성원	인물과사상사	평택 권미향
	일상에서 철학하기	낮익은 세상을 낯설게 바꾸는 101가지 철학체험	로제 폴 드르와	시공사	김포 김문희
교육	좋은 아버지 수업	사랑에 서툰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다움 공부	임정묵	좋은날들	광주 조선경
	꿈의 교실	공부의 맛을 알아가는 플래닝 학습법	고봉익	해와비	포천 성봉근
	뇌과학과 학습혁명	뇌과학에서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	테리 도일	돈을새김	평택 장주택
사회 과학	장사의 신	장사의 신에게 전해듣는 최고의 성공비법	우노 다카시	쌤앤파커스	포천 최영심
	14호 수용소 탈출	민족의 아픔, 탈북과 인권	블레인 하든	아산정책연구원	중앙 홍은경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힘든 상황을 즐기는 지혜	전옥표	중앙북스	중앙 박소영
	리관유와의 대화	리관유 일대기	툼 플레이트	RHK	김포 노경아
과학	철학적 질문 과학적 대답	철학과 과학의 조화	김희준	생각의 힘	포천 심영주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30	자연과 생체를 모방하는 놀라운 바이오메틱스	김은기	지식프레임	김포 박치성
	현실, 그 가슴뛰는 마법	마법같은 현실을 과학으로 풀다	리처드 도킨스	김영사	중앙 박윤정
일반 교양	우유의 독 : 내몸을 망치는 11가지 이유	우리가 우유에 대하여 몰랐던 진실	프랭크 오스키	이지북	중앙 김민지
	사람이 그리움을 부른다	나만을 위한 힐링여행	함길수	상상출판	중앙 정은교

위 도서들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홈페이지
<http://www.happylib.or.kr>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	도 서 명	주 제	저자명	출판사	추천인
문학	조커와 나	청소년 폭력의 다양한 양상과 해결책	김중미	창비	평택 서민혜
인문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청소년 인문학에 질문을 던져라	김경집	꿈결	김포 김관혁
일반교양	행복 교과서	내안에 있는 행복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주니어김영사	중앙 이진형
사회과학	내이름은 옴비	인권이야기	옴비토나	이후	평택 성경희
과학	이만근교수의 수학 오디세이	위대한 수학자를 찾아 떠난 세계여행	이만근	21세기북스	중앙 김숙진
과학	우리 역사속 수학이야기	수학이야기	이장주	사람의무늬	평택 이미경

어린이 및 유아

분야	도 서 명	주 제	저자명	출판사	추천인
어린이	장애란 뭘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아이들의 시선	엘렌 드 레스디네르	톡	포천 임유라
	기이한 책장수 조신선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책이야기	정창권	사계절	중앙 김경애
	여우의 화원	쌍용자동차 사태를 아시나요?	이병승	북멘토	광주 윤선경
	옛이야기 들으러 미술관 갈까?	우리 옛이야기와 옛그림	정숙영	웃는돌고래	평택 서민혜
	행복을 파는 동물원	행복의 의미	아마다 유카	주니어김영사	중앙 김진경
	늘 푸른 우리 소나무	식물이야기	이상배	해와나무	김포 박현정
유아	구름으로 만든 옷	더 욕심내면 모든걸 망칠수 있어	마이클 캐치폴	키즈엠	광주 황원규
	안돼	관계의 중요성	마르타 알테스	북극곰	평택 권미향

문학



도르와 함께한 인생여행

미치 앨봄 / 21세기북스 / 2013 / 322p.
주제: 시간의 소중함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신수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저자 미치 앨봄의 신작 '도르와 함께한 인생여행'은 행복해지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화 소설이다.

소설 속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불행한 빅토르와 더 적은 시간을 원하는 세라, 처음으로 시간을 만들어낸 시간의 아버지 도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도르는 인류 최초로 시간을 측정할 죄로 수세기 동안 죽지도 못하고 동굴에 갇혀 지낸다.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면 갱생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현대 시대를 사는 백만장자 노인 빅토르와 실연의 상처로 자살을 기도한 소녀 세라를 만나 시간 여행을 한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살던 세사람이 시간 여행을 함께하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간다는 내용으로 인생의 소중함에 대해 되돌아보고 한정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느끼게 해준다.

웁긴이의 말처럼 이 책은 시간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된다. 누구에게나 하나뿐인 삶, 그 명제가 너무나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는 이유이다.

문학



서른 넘어 함박눈

다나베 세이코 / 포레 / 2013 / 284p.
주제: 인생과 연애의 쓴맛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이민섭

일본의 박완서라 불릴 정도로 많은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은 다나베 세이코의 단편 연애소설이다. 국내에서는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이라는 작품을 통해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녀다. 이 책은 서른이 넘어 사랑을 갈망하는 아홉 여자들의 좌충우돌 연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십대를 지나며 인생과 연애의 쓴맛을 본 여자 주인공들이지만, 그녀들에게 연애는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금 몇 시예요?》의 주인공은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남자에게 말을 붙이지 못한다. 두 번째 《루미코의 방》에서는 결벽증에 걸린 주인공이 우연히 친구의 방을 청소하면서 발견하게 된 남자의 속옷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경험을 한다. 남녀 간의 연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녀관계를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깜짝 우동》도 흥미롭게 다가온다.

'서른 넘어 함박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연애 이야기는 달콤하다기보다는 씁쓸하다. 작가는 이런 사랑의 비극적 모습을 유머와 풍자를 통해 풀어놓는데, 이런 점이 독자들에게 묘한 편안함을 주고, 책을 읽을수록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주인공들의 고백과 독백은 너무나 생생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연애의 기쁨 뒤에 감춰진 쓸쓸함과 남녀 사이의 감정을 감각적이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냈다.

문학



세상에 예쁜 것

박완서 / 마음산책 / 2012 / 279p.
주제: 인생의 성찰과 지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김세영

전쟁과 분단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감성과 애환을 어루만져주던 작가 박완서가 작고 후, 유고집을 통해 잠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박완서 특유의 감수성으로 풀어낸 미출간 산문 38편이 수록된 책으로, 작가의 별세 후 장녀 호원숙씨가 고인의 원고들을 발견하여 묶어낸 것이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통해 일상에서 느낀 감정을 쓴 산문들이 모여, 명품 조각보처럼 산뜻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지인의 병실에서 느낀 세상의 예쁜 것에 대한 찬탄이 담긴 표제작 '세상에 예쁜 것'을 비롯해, 저자의 강연록과 초등학교생의 질문에 대한 답까지 모은 산문집으로, 소설과는 또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작가가 마지막으로 쓴 글로 시작되는 '깊은 산 속 웅달샘'이다. 주로 저자의 지인들에 대해 남긴 글과 편지 모음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글인 '사랑하는 손자에게'에서는 손자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듬뿍 묻어난다.

‘세월이 연마한 고통에는 광채가 따르는 법이다.’

서문 글귀처럼 문장 곳곳에서 빛나는 연륜이 묻어나는 이 책이, 박완서 감수성에 목마른 독자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인문



하워드의 선물

에릭 시노웨이, 메릴 미도우 / 위즈덤하우스 / 2013 / 281p.
주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12가지 지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최문형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질문에 바로 긍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다.

하버드 경영 대학원 최고의 교수 '하워드 스티븐슨'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기적적으로 깨어나 새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제자이자 저자인 '에릭'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인생에 대해 만족해 하는 스승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요청한다. 이 책은 수년 동안 하워드와 에릭이 함께 나눈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삶 자체에 대한 것, 삶을 다르게 보는 방법, 삶을 재정의 하는 것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실존 인물의 사례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고, 스스로 원하는 '성공'에 대해 재정의 해 볼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워드의 선물'은 '후회 없는 삶'을 주제로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삶의 위로가 되어 주고 용기를 얻게 해준다. 인생의 방향 설정에 힘겨워하고, 진정한 인생의 멘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인문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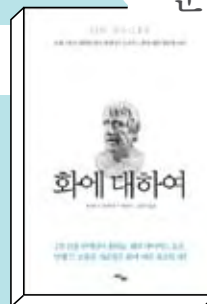
카루나 케이턴 / 북돋움 / 2013 / 238p.
주제: 마음의 건강을 얻는 방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정은성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을 겪는다. 한번쯤은 고민을 하거나 불안한 내 마음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그 풀 수 없는 고민에 직면할 때 마음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의외로 자신의 생각, 기분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요즘 TV프로그램이나 책 제목에서 ‘힐링’, ‘마음을 치유한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지만 우리는 정작 어디부터 걱정거리를 몰아내야 하는지, 걱정거리를 떨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근심, 걱정 속아내는 하루 10분 마음훈련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 하는가』 이 책의 저자 카루나 케이턴은 티베트 불교를 오랫동안 수련한 심리치료사이다. 이 책은 불교 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치유보다는 오작동 하는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불교 심리학으로 풀어간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등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마음훈련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가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하루 10분 짬을 내어 어느 곳에서든 실천할 수 있는 마음훈련법 10가지도 수록하여, 바로 오늘부터 일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문



화에 대하여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 사이 / 2013 / 248p.
주제: 화에 대한 철학적 사색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엄영남

누구나 자신의 ‘화’를 조절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분출하고는 뒤늦게 후회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나도 그랬다. 그 순간 화를 내는 것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폭발시키고 만 것이다.

이렇게 서로 서로 ‘화를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가 저술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 저자가 그의 동생에게 들려주는 서간문 형식의 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화는, 화낸 사람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

“화를 내어 이기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다!”

등 저자는 이 책에서 화는 오히려 화낸 사람에게 화살이 되어 되돌아와 ‘자기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당한 화의 표출이라도 결코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 땅에서 오늘도 감정의 부대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다혈질 성향의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한번쯤 자신의 화를 통찰해보고 화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의지, 노력으로 화를 다스리려는 노력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문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

전성원 / 인물과사상사 / 2012 / 536p.
주제: 현대를 창조한 사람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권미향

이 책은 저자가 ‘월간 인물과 사상’에 연재된 다수의 칼럼을 다듬어 엮은 책으로,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속에 깊이 관여되어 지배해왔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천재적인 인물 16명을 통하여 그 시대의 이야기와 현대성에 대하여 성찰해 보는 인문학 책이다.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는 총 16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챕터에서 한 명의 인물 혹은 하나의 기업을 소개한다.

헨리 포드, 칼라시니코프, 윌리엄 보잉, 샘 월튼, 모리타 아키오, 조지 갤럽, 에드워드 버네이스, 로버트 우드러프, 새뮤얼 제머리, 록펠러, 뒤퐁 가문, 월트 디즈니, 힐튼, 휴 헤프너, 마사 스튜어트, 프리츠 하버까지.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단순히 그러한 인물들의 천재성으로 인류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의 업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야기와 그 인물이 깔아놓은 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현대적 일상의 발명자들의 흥미로운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이 세계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비슷비슷한 구성과 내용의 자기계발서나 위 인전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읽어 보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된다.

인문



일상에서 철학하기

로제 폴 드르와 / 시공사 / 2012 / 308p.
주제: 낮익은 세상을 낯설게 바꾸는 101가지 철학체험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김문희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듯 생각나는 사소한 의문들을 행동과 연관시켜 철학을 체험하고 실천해 볼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해준다.

‘내이름 불러보기’, ‘어릴적 장소 찾아가기’, ‘모든 전화 차단시키기’, ‘10분간 소리지르기’, ‘오줌 누면서 물마시기’, ‘천까지 숫자 세어보기’ 등 일상의 사소한 철학 체험활동을 소개해주고 있다.

프랑스 국제철학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일간지 르몽드 칼럼니스트로 일한 로제 폴 드르와는 낮익은 세상을 낯설게 바꾸는 101가지 철학 체험을 제안한다.

‘천까지 세어보기’는 15분가량 걸리는 활동이지만 숫자를 세는 동안 뜻밖에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오를 수도 있다. 천까지 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천까지 고지에 도착했을 때 천이라는 수가 굉장히 큰 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무 준비물도 필요없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체험 활동들을 하다보면 어느새 철학자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잠깐의 시간을 내어 자신과 주변의 사물들을 깊이 있게 상상하고 깨닫는 일이 흥미롭고 유쾌하다.

교육



좋은 아버지 수업

임정목 / 좋은날들 / 2012 / 288p.

주제: 사랑에 서툰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다움 공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조선경**

“아버지 노릇하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푸념인지 한탄인지 모를 이 책의 첫 문장이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의 아버지들은 21세기의 아이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요구받지만 오히려 예전의 아버지가 받던 존경이나 권위는 사라지고 없는 오늘날이다.

이 책은 완벽한 아버지가 나처럼 해보라고 뽐내며 쓴 글이 아니다. 오히려 작가가 바라는 아버지의 이상향을 모은 글에 가깝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우선 아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는 학교에서 직접 마주치는 아이들의 ‘진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실제 상황을 예로 들면서 단순히 이상한 아이들이라거나 버릇이 없다고 치부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해석해준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말씀’이 아닌 ‘권유’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권위 대신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라고 알려준다.

도통 속을 알 수 없고 뜻대로 안되는 아이 때문에 답답해하는 아버지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내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이 한뼘 짙은 넓어지게 될 것이다. 아이에게 무섭거나 무력한 아버지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교육



꿈의 교실

고봉익 / 해와비 / 2012 / 215p.

주제: 공부의 맛을 알아가는 플래닝 학습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성봉근**

이 책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공부의 맛을 알아가는 계획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학교현장의 리얼스토리로 쉽게 풀어 이야기하고 있다. 그동안의 자기주도학습 관련 책들이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 책 ‘꿈의 교실’은 교실과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한다.

저자 고봉익은 신개념 학습원리인 ‘플래닝’으로 교육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혁신가로, 입시위주인 사교육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보급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저자는 즐거운 공부, 하고 싶어하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먼저 꿈을 꾸고 스스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플래닝’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목표설정, 전략수립, 시간배치, 실행, 피드백의 5가지 플래닝 원리를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목표를 실행함에 있어 잘못된 습관이나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에는 고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자기주도학습과 플래닝 원리의 현장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자녀의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나 자신의 진로와 꿈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교육



뇌과학과 학습혁명

테리 도일 / 돔을새김 / 2013 / 349p.
주제: 뇌과학에서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장주택

미래사회 뇌 과학이 부상한다. 유엔미래포럼 제롬 글렌은 40년전 미래사회예측 공식으로 농경시대 7000년, 산업시대 200년, 정보화시대 500년 그리고 2015년 혹은 2020년에는 뇌 과학 혹은 의식기술(conscious technology)시대가 온다고 예측하였다. 고령화시대에 치매나 각종 뇌 질환자가 많아지면서 뇌 의학이 발전하게 되고, 지식경제시대에 지식에 대한 갈망과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적절한 지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활용하면서, 지식을 저장하는 기술 발전으로 인간은 더욱더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기를 원하게 된다.

이 책은 생물학, 심리학, 인지 신경과학 등의 분야에서 찾아낸 뇌 과학 관련 연구결과를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써 '학생 중심의 수업'을 제안한다. 요즘 유행하는 뇌 과학과 학습을 연결시키되, 뇌 과학에서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라고 하니 한번쯤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무리 뇌 과학 운운해도 공부에 흥미가 없다면 학습은 일어날 수 없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의 주체는 바로 학생이다. 학생이 공부를 하겠다는 의욕을 갖게 하는 학습법이 가장 좋은 학습법 아니겠는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발휘할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의미를 발견한다면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하라. 이게 이 책의 핵심이다. 사람은 주체적으로 활동할 때 뇌가 더 활발히 활동을 하며, 자신이 주체가 되었을 때 학습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힘을 얻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장사의 신

우노 다카시 / 쌤앤파커스 / 2012 / 264p.
주제: 장사의 神에게 전해 듣는
최고의 성공 비법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최영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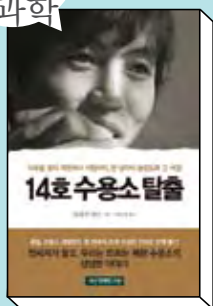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안되서 괴로운 청년들이나 매일매일 직장생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쉽게 내뱉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직장 정말 못 다니겠네... 장사나 해볼까...' 이다. '해보고 안되면 말지 뭐!'식의 생각으로 장사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낭패를 본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꽤 있다. 장사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다 삼년 이상 가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부족한 정보와 개인의 무능력에 있는 것일까. 5평짜리 가게에서 시작해 일본 수도권에만 20개 넘는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이자카야의 전설, 우노 다카시가 말하는 장사의 핵심이 이 책 '장사의 신'에 들어 있다.

책을 통해 살펴 본 그가 말하는 성공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본인이 일을 즐기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가진 장점을 생각하며 일을 하면 일을 더 즐길 수 있고, 본인이 일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핵심이라고 말한다. 매일 영업이 끝나면 직원들과 한 잔 술을 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직원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작은 세심한 서비스가 쌓이면 손님들은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단골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우노 다카시와 종업원과의 관계였다. 그는 종업원과 함께 성장하는 가게를 만들고 있다. 장사에 성공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은 바로 '공감과 소통'이었다.

이 책은 일단 내용이 쉽다. 톡톡 내뱉는 듯한 구어체로 쓰여져 마치 앞에서 작가에게 조언을 듣는 듯한 느낌도 든다. 또 장사뿐 아니라 모든 일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사회
과학



14호 수용소 탈출

블레인 하든 / 아산정책연구원 / 2013 / 380p.

주제: 민족의 아픔, 탈북과 인권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홍은경**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서방까지 한 남자의 놀랍도록 긴 여정”

최근 라오스로 탈북한 북한의 9명 청년들이 결국 복송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 책을 발견하고 손에 들 수밖에 없었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이 분단의 현실을 겪으며 살고 있는 세대로서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다.

이 책의 주인공 신동혁은 북한에서 태어났으나 탈북한 청년이며, 저자 블레인 하든은 미국의 저명한 방송인이자 저널리스트이다. 신동혁의 참혹한 수용소 생활과 가족마저도 믿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의 폭로에 외국의 신문 등 매스미디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신동혁을 이해하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의 흔적이 책 전체에 흐른다. 북한주민들의 탈북과 인권에 대해 심심치 않게 보도를 접하면서도, 정작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에 대해 생각하면, 한 민족이 겪는 고통의 세월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 한민족이 갖게 될 괴리감이 두렵기까지 하다.

저자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유명인사가 없다는 사실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인 우리로서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화두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책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다가올 통일시대로 다가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닐까.

사회
과학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전옥표 / 중앙북스 / 2013 / 268p.

주제: 힘든 상황을 즐기는 지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박소영**

이 책은 30년 현장 노하우와 1등 조직의 비밀을 담은 책 <이기는 습관>으로 150만 독자를 사로잡은 전옥표 박사가 지금 힘든 사람에게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통찰의 메시지를 들려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눈물을 참는 그대에게 힘들면 실컷 울어라,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비록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스타일로 걸어가라며 이야기한다.

총 다섯 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눈물을 참는 그대에게 괜찮다**」 파트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격려하고 있고,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파트에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통해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파트 3. 「**초라한 삶, 절대 용납하지 않기**」에서는 외모가 꾸기보다 절박한 영혼관리를 통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스타일로 승부를 걸라고 한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비결**」편에서는 건강한 불안, 투지, 관계, 시간이라는 4개의 키워드로 뜻한 대로 되지 않는 힘든 이에게 삶을 관리하는 비법을 전해준다. 마지막 「**두 번째 사는 인생처럼 품위 있게**」에서는 최후의 승자는 이 세상 떠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죽은 사람 · 죽은 조직 · 죽은 기업에는 힘든 일도 도전도 없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힘든 만큼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힘든 상황을 즐기는 지혜를 터득하기 바란다.

사회
과학



리관유와의 대화

툼 플레이트 / R-HK / 2013년 / 303p.
주제: 리관유 일대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노경아

아시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2012년 기준 인구 531만 명에 서울보다 약간 큰 면적의 도시국가, 바로 싱가포르다.

땅도 좁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는 도시국가가 국제 금융·교육·물류 중심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비결은 무엇일까? 그런 싱가포르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사람이 바로 싱가포르를 설계한 국부(國父) 리관유다.

리관유는 1959년 자치령 싱가포르 총리를 시작으로 1965년 독립국가 싱가포르의 총리를 지내며 1990년 총리직 사임까지 총 31년간 재임했던 정치 지도자로 리관유의 일대기가 곧 싱가포르의 역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러울 만큼 그의 통치기에 싱가포르 경제는 물론 국정 운영에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

현재의 싱가포르 기적을 이루어낸 리관유는 그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입각한 강력한 통치로 '현대 아시아의 현자' 혹은 '소프트 독재자'라는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리관유의 일대기를 통해 정치인의 본성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



철학적 질문? 과학적 대답

김희준 / 생각의힘 / 2012 / 264p.
주제: 과학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심영주

이 책은 철학으로 질문을 던지면 과학으로 대답을 하고, 과학이 제시한 의문을 철학이 풀어내기도 한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철학과 과학이라는 두 분야의 조화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야에 흥미를 주는 요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책은 크게 3개의 주제로 되어있다. 종교와 철학에서 제시한 첫 번째 주제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과학의 해답인 빅뱅 우주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우주론은 우주가 137억 년 전에 한점으로부터 대폭발로 출발해서 계속 팽창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우주론이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많은 종교에서는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도 하며, 인간을 몸, 마음, 혼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학은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혼을 제외한 몸, 마음은 두뇌와 신경계 활동의 결과로 과학이 다룰만 하다고 말한다.

마지막 주제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서는 프로스트의 '불과 얼음'을 제시하며 우리는 일단 열화와 같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티븐슨의 '비가 온 후에 햇빛이 비치면'이란 시를 인용하며, 우주 진화의 종말이 피치못할 필연이지만 그 필연을 넘어서서 돌아갈 집을 소망하는 인간의 마음을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커다란 의문 부호로 남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분야가 많은 부분 얹혀있어 책을 읽는 내내 진지하면서도 새롭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과학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30

김은기 / 지식프레임 / 2013 / 254p.
주제: 자연과 생체를 모방하는 놀라운 바이오피메틱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박치성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30』은 현재 인하대 생명과학부 김은기 교수가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발견한 아이디어에서 발명된 기술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자연과 생체를 모방하는 기술 바이오피메틱스가 장차 어떻게 인류 미래의 해답 사례로 30가지를 소개한다.

이 책은 상어 비늘 돌기에서 착안한 전신 수영복, 방울뱀의 적외선 감지 세포를 모방한 적외선 센서,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인 우리 몸의 배아줄기 세포 재생능력과 병원균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하는 면역체계는 앞으로 인간이 각종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저자는 우리 인간이 위대한 자연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찾아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과학



현실, 그 가슴뛰는 마법

리처드 도킨스 / 김영사 / 2012 / 272p.
주제: 마법같은 현실을 과학으로 풀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박윤정

전통적인 생물진화론의 대표 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기존의 저서에서처럼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서술했던 방식에서 탈피, 쉽고 부드러운 접근 방식으로 현실과 과학, 진화론의 관계를 설명한다. 책은 현실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과 관련된 신화들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것을 진화론에 대한 설명부터 지구과학, 천문학, 질병학, 언어학, 분자와 원소 등의 화학에 관한 지식정보까지 망라하여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나간다.

저자는 현실의 질문에 대해 과학 전반에 걸친 방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증과 사례분석의 풍부한 과정까지 표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상상력을 자극하는 친절하고 세련된 삽화까지 적절히 더해 독자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해 주고 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현실과 현상에 대해 생생하고 명쾌한 과학적 증명을 원한다면, 과학에 흥미가 있지만 접근이 어려웠던 과학 초보자들이 부담없이 과학에 입문하고자 한다면, 또한 과학의 비밀로 가득 찬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슴을 뛰게 하는 마법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권한다.

일반
교양



우유의 독 내 몸을 망치는 11가지 이유

프랭크 오스키 / 이지복 / 2013 / 210p.
주제: 우리가 우유에 대해 몰랐던 진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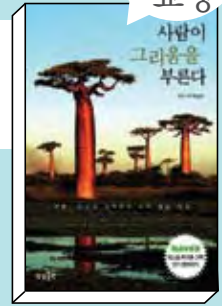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것처럼 우유는 진짜 완전식품일까?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우유의 독 : 내 몸을 망치는 11가지 이유』는 미국에서 1983년 출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첫 출간된 이후 올해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이 책의 역사가 말해주듯 오늘날 여전히 끊이지 않는 우유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는 프랭크 오스키의 이 저작은 오랜 시일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읽어볼 가치가 있다. 아직도 우유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쉽게 제외될 수 없는 권장식품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총 11개의 장(chapter)에서 우유에 대한 다양한 실험적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우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우유는 천연식품일까’, ‘가스, 복통, 설사의 원인이 우유와 상관있을까’,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을까’, ‘우유와 모유의 무엇이 다를까’, ‘우유의 칼슘은 정말 유효한가’, ‘우유 마케팅음모론’ 등이 그것이다.

우유를 마시고나면 설사를 하거나 속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어쩌면 ‘유당불내증’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매일 먹는 유제품, 우리는 과연 그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식생활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이 책은 현대인뿐만 아니라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만하다.

일반
교양



사람이 그리움을 부른다

함길수 / 상상출판 / 2012 / 380p.
주제: 나만을 위한 힐링여행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정은교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한번쯤 ‘나를 위한 여행’을 꿈꾸게 된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바빠다는 이유로 쉽게 떠날 수 없을 때, 우리는 여행책을 통해 위안을 받는다. 이 책은 나만의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이 책은 20년간 자동차 탐험가로, 사진작가로 살아온 저자가 네이버 캐스트 ‘지구촌산책’에 2년 동안 연재한 세계 여행을 모아 엮은 포토에세이로, 저자는 이 책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알래스카 등 12개 나라의 대자연과 함께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그가 보고 느낀 것, 경험한 것을 주관적인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각 나라들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각 나라를 소개하는 글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풍경이 잘 어우러져 실제로 그 나라를 방문하고, 그들을 만나 소통한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눈을 떼 수 없는 각 나라의 대자연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사람들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표정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현실의 삶에서 진정한 삶의 여유와 평화를 느끼면서, 지친 마음을 위로 받게 된다.

이 책을 통하여 번잡하고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지친 마음에 휴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선생님과 우리들이 함께 읽어요

청소년 추천도서



문학



조커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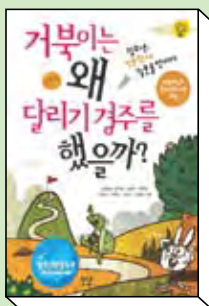
김중미 / 창비 / 2013 / 268p.
주제: 청소년 폭력의 다양한 양상과 해결책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서민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 주변 친구들의 따돌림과 학교폭력, 불우한 가정환경에서도 상처를 받지만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니다.

어떤 학생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선을 긋고 계급을 만들어 차별하고 있으면, 다른 학생들은 선박에 나지 않음을 고맙게 여기고 그에 동조하며 지내고 있다. 학생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원인부터 찾아서 해결해야 할 학교는 쉬쉬하며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버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받는 피해는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사람들의 무지와 오해,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그 상처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게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용기'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고백과 대화, 도움을 청하였을 때 받아들이고 내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여 더 이상 불의에 타협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 마음을 돌리라는 것이다. 이런 행동 하나가 사회 전체를 바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개인의 행동들이 모여 하나씩 천천히 치유되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책이다.

인문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김경집 외 7명 / 꿈결 / 2012년 / 360p.
주제: 청소년 인문학에 질문을 던져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김관혁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는 윤리, 문학, 철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 8인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문학강연의 만남을 통하여 엮어낸 청소년 인문학 이야기책이다. 다소 무겁고 지루할 수 있는 윤리, 문학, 서양철학, 과학 그리고 역사, 동양철학, 롤모델, 예술의 8가지 인문학 이야기를 주위의 가벼운 소재와 주제들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소녀시대 윤아는 왜 예뻐까?'와 같은 친근한 주제로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엮어내고 있다.

'청소년과 인문학'의 만남을 다루는 이 책은 자아의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의 청소년기에 '나의 삶과 주위와의 관계, 행복의 조건, 아름다운 외모의 관점, 꿈꾸고 희망하는 것들' 등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고 찾아가는 인문학의 본질적인 사고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왜'라는 질문이 지속 가능하다. 이 책을 통해 인문학의 매력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 보자.

일반교양



행복 교과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 주니어김영사 / 2011 / 163p.

주제: 내 안에 있는 행복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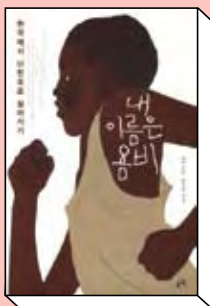
영화 메멘토의 주인공은 기억을 10분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몸에 기억을 문신한다.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상처가 되고, 잊으려 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고통과 상처의 시간처럼, 사람은 불행을 습관적으로 기억해내는 버릇이 있다. 반면에 행복과 감사함은 어떠한가,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과 감사했던 기억은 쉽게 잊혀지고 사라져 버리지 않는가.

공부도 그러한 것 같다. 매년 학기초가 시작되고, 새 책이 나오면 이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그게 오래도록 지속되긴 힘들다. 가끔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의 목표의식도 잊은채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 대부분일 것이다.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의식을 정확히 세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습관처럼 이것을 기억해내고 자신을 복돋울 수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그 길을 걷고 있진 않을까.

이 책은 다른 책들과 같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행복함과 작은 것에 감사함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책들과 달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청소년들이 가는 길을 조금은 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틈이 나면 내가 잊고 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여름이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사회과학



내 이름은 욘비

욘비 토나 / 이후 / 2013 / 340p.

주제: 인권이야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성경희

「내 이름 욘비」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한국으로 탈출해 6년간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어렵게 난민으로 인정받고 지금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욘비 토나 씨의 실제 이야기다.

저자 욘비 토나는 콩고민주공화국 반둔두 주 키토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대학을 가는 것이 특권인 나라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콩고비밀정보국에서 일했으며, 정보국 작전을 수행하던 중 조셉 카빌라 정권의 비리를 알아채고 최대 야당인 〈민주사회진보연합〉에 그 정보를 전달하려다 체포되어 갇은 옥고를 치르다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한국에 오게 된 사람이다.

“난민들은 차별이나 폭력, 협박, 고문 등 심각한 박해의 위협을 피해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책 속에 이런 난민에 대한 설명의 글이 있다. 욘비 토나 씨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와 불법체류자로, 또 인종차별의 서러움을 견디며 살아온 이야기를 읽다보면 우리가 세계인으로서 자유와 정의와 인권을 이 정도로밖에 보호할 수 없는 걸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이 책, 아니 욘비 토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었나?’ 하는 무관심을 버리고, 난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들의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과학



이만근 교수의 수학 오디세이.1

이만근 / 21세기북스 / 2013 / 372p.
주제: 위대한 수학자를 찾아 떠난 세계여행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숙진

이 책은 저자가 2년 동안 세 번에 걸쳐 여행한 세계여행기로 동아일보 '이만근 교수와 함께 수학의 고향을 찾아서'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1권은 수학의 본고장인 이집트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여행을 담고 있으며, 2권은 천재 갈루아의 나라 프랑스를 시작으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의 숨겨진 재미난 수학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수학 최초의 기록이 여성의 생리주기였다는 사실, 한국 나이와 미국 나이의 셈법의 차이 0이 없는 문화, 예수가 부활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한 사람들 등 어렵고 딱딱한 수학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 할만한 인류 문명 속의 수수께끼를 수학자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수학 역사를 테마로한 여행에세이로 기존의 구태의연한 수학의 역사 이야기에서 벗어나 저자가 직접 찾아가 나라의 여행기를 통해, 수학 속에 숨은 나라별 생생한 이야기와 수학 탄생 에피소드가 어우러져 수학은 재미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흥미롭고 더 알고 싶은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과학



우리 역사 속 수학이야기

이장주 / 사람의무늬 / 2012 / 205p.
주제: 수학이야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이미경

수년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저자는 “선생님 옛날에 우리 선조도 지금처럼 수학을 배웠는지?”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고민하며 오랜 시간 동안 도서관을 오가며 옛 자료를 모으고 여러 학자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저자 이장주 선생님은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 민족은 수학적으로 우수한 민족이고 이에 자부심이 생겨 조상님들의 위대한 수학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책 내용의 구성은 살펴보면 인물 중심의 수학이야기와 역사 유물 속의 수학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수학을 사랑한 세종대왕의 이야기에서부터 중국의 사신으로 온 수학자 하국주와 우리 수학자 홍정하, 유수석의 수학 한중전 이야기, 조선의 실학자 중 유일한 수학책을 펴낸 홍대용 이야기, 수학을 공부한 독립 운동가 이상설, 남순희 이야기로 신선함과 재미가 느껴진다. 제2부는 첨성대, 석굴암, 안압지에서 출토된 주사위, 마방진 속에서 우리조상님들의 수학을 적용한 유물에 얽힌 놀라운 수학이야기가 전개된다.

우리나라는 수학 올림피아드나 세계적인 대회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흥미도는 최하위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수학을 기계적으로 푸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길들여진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재미있는 수학이나 흥미를 갖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해 본다. 특히 수학과 매일 씨름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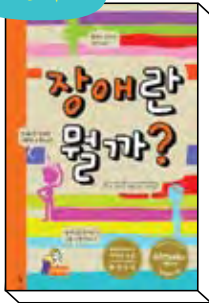
책이랑 나랑

어린이 및 유아 추천도서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홈페이지
<http://www.happylib.or.kr>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 전학년



장애란 뭘까?

엘렌 드 레스니데르, 소피 보르데-프티용 / 독 / 2012 / 77p.

주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아이들의 시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임유라

이 책은 선천적인 장애, 사고로 인한 장애, 장애인의 복지, 보호법, 장애의 종류 등 다양한 정보를 편견과 선입견 없이 이야기한다. 장애인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할 법한 질문들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물음과 답으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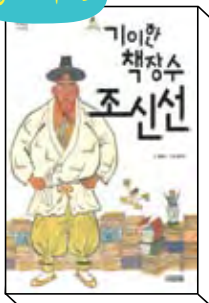
그리고 아이들이 보기 쉽도록 주제별로 적절한 그림과 중요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잘 정리해 놓았다. 또한 청각장애자나 시각장애자가 사용하는 수화와 점자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눈이 보이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 있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장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저자가 대담해주는 방식이 매우 신선했고 우리 아이들이 평소애 잘못 알고 있거나 제대로 몰랐던 장애와 장애인을 정확히 알게 도와주고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생각의 시야를 확 띄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장애는 장애때문에 오는 슬픔보다 잘못된 시선에서 오는 슬픔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조차도 장애에 대해 단순한 차별과 동정, 편견을 갖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장애인을 나와 다르다고 보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존중 받아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초등 고학년



기이한 책장수 조선선

정창권 / 사계절 / 2012 / 113p.

주제: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책이야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경애

조선시대에도 서점이 있었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을 어디서 책을 사고 빌려보았을까?

이런 물음에 궁금증이 생긴다면 조선시대 '조생'이라는 서적중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문필가 '추재 조수삼'이 실화를 토대로 지었다고 전해지는 옛이야기 '육저 조생전'을 근거로 지어낸 이야기이다. '조선선'은 그가 신선처럼 기이한 풍모와 행동을 했다하여 세간 사람들이 지어낸 별명이다.

각 장마다 주인공 '조생'과 등장인물들이 겪는 한가지씩의 에피소드로 조선시대의 사회상과 분위기를 전해준다. 조선시대 양반은 어떻게 책을 구했는지, 책은 시장에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그 당시 국립출판사였던 교서관이란 무엇인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은 어떻게 구했는지, 금서를 둘러싼 사건 등 흥미진진한 역사속 이야기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지식을 채워준다.

저자 정창권은 역사와 고전문학을 접목시킨 다양한 책을 지었으며,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본 이야기책 외에도 「역사 속 장애인을 어떻게 살았을까」(글항아리, 2011), 「조선최초 여자거상 김만덕」(주니어김영사, 2010) 등 역사속 사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작가이다.

초등고학년



여우의 화원

이병승 / 북멘토 / 2012년 / 175p.

주제: 쌍용자동차 사태를 아시나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윤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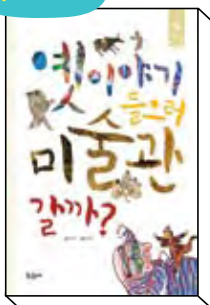
2009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22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쌍용자동차 사태를 기억하세요? '여우의 화원'은 쌍용자동차 사태를 바탕으로 작가 이병승이 쓴 창작동화이다.

미래 자동차 사장의 아들 민수와 해고 노동자 아들 역삼(윤)이는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단짝이었으나, 아버지의 해고라는 사건을 통해 둘은 갈등을 겪게 된다. 용역놀이에서 용역 역할을 맡은 역삼이 노조 간부가 된 민수를 마구 때리는 잔인한 놀이를 통해 민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들에게 해고라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해고란? 민수 아버지에게 '멋진 잔디밭을 가꾸기 위해 잡초를 뽑아내어야 하는 과정'이며, 역삼 아버지에게 '공장에서 몇 십년간 성실히 뿌리를 내린 나무들을 갑자기 뽑아내 말라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양측의 입장이 각각 다름을 느낀 민수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결국, 민수는 친구들과 같이 성탄절 연극을 통해 어른들을 설득하기로 마음먹고 행복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극은 시작되는데, 과연 이 연극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재미는 아이들이 연극으로 올린 작품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우화이다. 황무지를 멋진 화원으로 바꾸지만, 욕심이 지나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여우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린이의 눈으로 보는 어른의 세계는 어떨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아이들의 노력과 시선이 아름답다. 아직도 해고 노동자들은 생활고, 가정불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초등전학년



옛이야기 들으러 미술관 갈까?

정숙영 / 웃는돌고래 / 2013 / 151p.

주제: 우리 옛이야기와 옛 그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서민혜

우리는 으레 그림 하면 '다빈치' 같은 서양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떠올리게 된다. 또 이야기 하면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와 같은 이야기를 떠올린다. 우리나라에도 '김홍도'와 같은 풍속화가와 구전되어 내려오는 많은 옛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옛 그림과 옛이야기에 대하여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끼는 일이 다반사이다. 아마도 조상들의 정서와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이 책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옛 그림과 옛이야기를 연결시킴으로 자연스럽게 선조들의 문화와 정서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또한 한 편의 그림과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교훈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주면서 옛것이 얼마나 소중한고 재미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복잡하고 서구적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에서 옛 분들의 그림과 이야기를 듣고 잠시나마 선조들의 지혜와 여유 있는 삶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초등중학년



행복을 파는 동물원

야마다 유카 / 김영사 / 2013 / 113p.

주제: 행복의 의미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진경

동물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행복'이다. 네댓 살 먹은 아이들이 젊은 부모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 아이가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에 놀라거나, 웃거나, 울면 그 모습을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의 사랑이 듬뿍 담긴 눈빛. 즐거운 소풍장소인 동물원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스해지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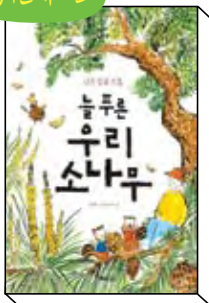
하지만 이 동화 속 동물원의 풍경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현실에 견주어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는 아이들의 외로운 속내, 어른들의 엇갈린 마음 속 갈들을 단순한 문장으로 섬세하게 포착한다.

동물원의 방문객, 마나와 마나의 부모님, 행복한 할아버지 할머니부부, 그리고 하마 사육사 이노우에를 통해 들려주는 각각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의 갈래를 열어준다.

어린이도 웃고 있지만은 않고, 어른도 세상일을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며, 행복은 다 가진 사람의 몫이 아니라 못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솟아나는 것임을. 그리고 만남뿐 아니라 헤어짐도 또 다른 행복의 약속일 수 있음을.

초등중학년들이 읽으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여운이 남는 동화이다. 행복 한 바꾸니를 사러 동화책 속 동물원이 방문해보자.

초등전학년



나무 중의 으뜸 늘 푸른 우리 소나무

이상배 / 해와나무 / 2012년 / 84p.

주제: 식물이야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박현정

이 책은 이야기로 풀어간 소나무 백과사전이다. 충북 괴산의 산골 마을에서 자란 저자는 어린 시절 산과 들에서 뛰놀고 보고 겪은 일을 되새겨, 자연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책은 9개의 챕터로 나뉘어 소나무의 종류, 쓰임새 등 소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조미자 작가가 그린 예쁜 삽화와 실사된 사진들이 잘 어우러진다.

소나무는 '솔'과 '나무'가 합쳐진 말로, 솔은 옛말로 '수리'라고 한다. 수리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로 수리가 '소'로 변하여 소나무가 되었다고 하며, 즉, 나무 중에 으뜸이라는 뜻이다. 소나무는 우리 생활과 가깝고 쓸모가 많은 나무이다. 오래전부터 뿌리, 줄기, 잎, 꽃가루, 솔씨, 송기(송껍질), 송진 등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고루 쓰였다.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때 목재로 이용, 차와 술, 약재로 만들고, 음식을 하거나 백자를 구울 때 땀감으로도 썼다고 한다.

경상도 봉화 땅에 '솔생이'라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 '송생이 할아버지(송씨 성에 마을 이름 중 두자를 붙임)'이다. 책에서는 송생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할아버지는 모자바위 소나무의 유래와 소나무의 쓰임새, 관련된 설화, 상징, 천연기념물 소나무, 소나무 해충, 소나무를 활용한 놀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린이들은 친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책을 읽으며, 자연스레 소나무에 대한 지식이 쑥쑥 쌓여질 것이다.

유아 4~7세



구름으로 만든 옷

마이클 캐치폴 / 키즈엠 / 2013 / 32p.
주제: 더 욕심내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황원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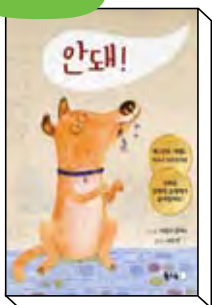
〈키즈엠〉에서 출간된 그림책 『구름으로 만든 옷』. 영국출신의 ‘마이클 캐치폴’이 썼다. 그는 영국에 있는 학교의 교장을 역임하고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다. 그림이 이쁜 책으로 구름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책이다.

구름으로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는 소년이 있었다. 왕은 소년이 만든 옷을 보고 욕심이 생겼고, 자신과 왕비, 공주의 옷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소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계속 이어지고, 그로인해 하늘에 구름이 없어지고 비가 오지 않았다. 물은 마르고 땅이 매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가축도 살 수가 없었다. 공주는 그동안 만들어준 옷감을 가지고 소년을 찾아간다. ‘다시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을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책은 내게 몇몇 문장을 되새기게 했다. 그것은 ‘지금이 적당해. 지금이 충분해’,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심히 지나칠 문구들이지만 내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 친근한 소재와 이쁜 그림이 아이들에게 그 느낌을 전달해 주는 듯 하다.

아이들이 다양한 주제의 독서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구름으로 만든 옷』에서 말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때 아이들은 공주가 말했던 것처럼 ‘아직 늦지 않았어요!’하고 외칠 것이다.

유아 4~7세



안돼!

마르타 알테스 / 북극곰 / 2012 / 36p.
주제: 새로운 친구 사귀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권미향

『안돼!』는 자신의 이름을 ‘안돼’라고 알고 있는 강아지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강아지 ‘안돼’는 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집안일을 돕고 있고 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안돼’는 일거리만 더 만드는 말썽쟁이 강아지다. 그래서 가족들은 ‘안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주인공 강아지는 그걸 자기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만한 흔한 사건들을 이야기로 엮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펼쳐내 전혀 다른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따뜻한 우리 가족 이야기이다. 그리고 다양한 포즈를 선보이는 개의 그림들이 귀엽고 재미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든 사람과 동물의 관계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유머와 감동으로 깨우쳐 주는 작품이다. 아직은 미성숙한 유아들에게 몇 페이지의 간단한 그림과 글로써 ‘역지사지’라는 개념을 가르쳐준다.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게 언제인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본 게 언제인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대출기간 2013. 3. 1 ~ 2013. 5. 31

이용자가 선택한 즐겨찾는 책 FIVE

중앙



일 반

26년
그들만의 천국
불합격을 피하는 법
어떻게 살 것인가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강풀
서민영
최규호
유시민
김난도

문학세계사
다인박스
법률저널
아포리아
오우아



어린이

아빠가 용을 사 왔어요
Jy first words. 1, all about me
(천웨이동)서유기. 7, 진짜 손오공과 가짜 손오공이 겨루다
(Why?) 공생과 천적
(Why?) 암석과 광물

마거릿 마이
JYbooks
천웨이동 평차오
박세준
조영선

현복스
제이와이복스
위즈덤
예림당
예림당

평택



일 반

7번방의 선물
특허받은 영어학습법
습관의 힘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삶을 즐기는 리더십

이환경, 박이정
이강석
찰스 두히그
김난도
H. 데일트버크

가연
새움
갤리온
오우아
가이드포스트



어린이

아이쿠야 조심해! : 교통안전편
나쁜 어린이표
(만화로 보는)그리스 로마 신화
열세살 : 소녀성장소설
구름빵 : 꿈이 너무 많아

김석주
황선미
토머스 불핀치
로렌 미라클
GIMC, DPS

서울문화사
웅진닷컴
가나출판사
NI BOOK
한솔수북

광주



일 반

아이 러브 샐러드 : 매일매일 건강 담은 한 접시
눈물 젖은 삼겹살
영원의 미로. 1
디어 셰프
젊은 날의 깨달음: 하버드에서의 출가 그 후 10년

김영빈
전혜진
신해영
조아라
혜민

비타복스
청어람
가하
스칼렛
문학세계사



어린이

21세기의 깨끗한 변신 환경과학 세상
앨리스공주 & 유리구두
꼬박꼬박 저축은 즐거워
왜 동물들이 멸종되면 안 되나요?
곰빼기로 땡큐 땡큐

장수하늘소
비비안 프렌치
전윤희
홍상하
강용숙

두산동아
예림당
주니어김영사
참돌어린이
소담주니어



포천



일 반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나를 위한 1분:1분으로 완성하는 자기 혁명
이혼하고 싶은 여자
김미경의 드림 온 = Dream on
우선순위 영단어: 수학능력시험 직결

신경숙
김세유
임선영
김미경
안용덕

문학동네
이너북
골든북미디어
 쌤앤파커스
비전

어린이

안돼!
땀, 똥, 눈알, 쓰레기도 맛있다!
호기심 대장 헨리. 10,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아무도 모를걸!
무엇이 무엇이 필요할까

마르타 알테스
테레세 브링홀름
프란체스카 사이먼
야기 타미코
잔니 로다리

북극곰
계수나무
그린북
아이세움: 미래엔
아지북스

김포



일 반

아프니까 청춘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고령화 가족
1% 리더만 아는 정신의 힘

김난도
헤민
강세형
천명관
프렌티스 멀포드

쌤앤파커스
 쌤앤파커스
 쌤앤파커스
문학동네
민중

어린이

바람타고 달려라
링링은 황사를 싫어해
빈 화분
틀려도 괜찮아
야광귀신

임정자
고정욱
데미
마키타 신지
이춘희

문학동네
미래아이
사계절
토토북
사파리

여주



일 반

팀 홍명보호 Story
한국의 예술혼 높이 날다
(New)농구교본 개인전술
자녀 양육: 부모의 삶에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
이슬람

도영인
윤학
히다카 데쓰로
데이비드 H. 젠슨
카렌 암스트롱

북오션
현물결
삼호미디어
포이에마
을유문화사

어린이

(Why?) 시리즈
(노자가 들려주는) 도 이야기
(니체가 들려주는) 슈퍼맨 이야기
빈대 가족의 절약 1박 2일
수학도둑. 15

이근
박소정
강용수
이봉기
송도수

예림당
자음과모음
자음과 모음
재미북스
서울문화사

도심 속의 힐링캠프 「고양 아람누리 도서관」



탐방 • 경기도립중앙도서관 | 사서 권미향
| 사서 노경아

봄햇살이 따사로운 5월, 고양 아람누리 도서관을 다녀왔다.

도서관은 정발산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녹음(綠陰)의 자연 속에서 책이 주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람누리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이란 뜻으로, 장르별로 특성화하여 2007년 건설된 전문공연예술센터로서 아람누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아람극장, 아람미술관, 아람음악당, 노루목야외극장 등이 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개관 시부터 복합예술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람누리 도서관 이모저모』

아람누리 도서관은 약 16만여 권의 자료와 함께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장애인자료실, 정기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외국자료실, 전시코너, 쉼터 등을 갖추고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장애인자료실, 정기간행물실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자료실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무인대출반납기와 귀여운 독서대가 상시 비치되어 있어 어린이의 독서흥미를 유발시키고, 장애인자료실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대면

낭독실은 독서를 원하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의 독서환경 마련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이었다.

2층 종합자료실에는 예술분야 특화자료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다.



고양시 도서관은 각 도서관마다 특정 주제분야를 선정하고 수집하여 특화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람누리 도서관의 특화자료는 예술과 외국도서이며 예술분야는 2층 종합자료실에, 외국도서는 지하 1층 외국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다.

일반인은 물론 아람누리를 찾는 예술가들에게 정보와 영감을 제공해주며, 거대한 복합예술문화공간 ‘아람누리’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선정이라 생각된다.

또한 종합자료실 내에서는 고양시 거주작가 코너를 운영하여 작가와 독자가 만남을 가짐으로써 상호간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층에는 디지털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털자료실 벽면의 바코드 문양이 인상적이다. 바코드만으로도 책과 도서관을 표현하는 인테리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다.

지하 1층에는 외국자료실, 전시코너, 보존서고, 컴퓨터가 있다.

외국자료실은 예술분야와 함께 아람누리 도서관 특화자료실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외국자료들을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언어의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 찻자리 공간을 활용한 전시코너에는 예술작품들을 전시하여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의 발길을 멈추고 잠시 생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하 1층 컴퓨터에는 과월호 잡지를 상시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람누리 도서관에는 잠시 휴식하며 긴장을 풀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볼만한 장소가 곳곳에 눈에 띈다.

위에서 소개한 지하 1층 전시코너에는 상시적으로 작품을 전시하여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2층과 3층 로비에서는 시원하게 트인 숲과 광장을 마주하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한 아름다운 전망에 마음이 동한다면 책 한권을 손에 들고 숲길을 따라 나만의 힐링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 아람누리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

아람누리 도서관은 자료중심의 도서관을 표방하여 일반열람실이 없다.

앞서 말한 수많은 도서관 친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취업 성공을 원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열람실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발산 숲과 아람누리 문화광장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아람누리 도서관은 단편적 지식만을 쫓기보다는 침포 하나 짚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 공간으로 남겨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크고 아름다운 복합문화공간 ‘아람누리’ 명성에 걸맞게 사람과 책, 사람과 지역사회를 잇는 열린 정보공간으로, 도심 속의 힐링캠프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기대해본다.



독자와 함께 푸는



독서퍼즐

책을 많이 읽을수록 쌓이는 지식~

독서퍼즐을 풀면서 당신의 지식을 한 번 테스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호 정답도 확인해 보시고, 다음호 독서퍼즐도 기대해 주세요!

가로문제

- ① 안데르센의 작품 중에서도 뛰어난 걸작으로, '마법의 거울'이 등장하는 동화는?
- ⑤ 프랑스의 곤충학자로, 1879년부터 1910년에 걸쳐 불후의 명저 《곤충기》를 쓴 사람은?
- ⑦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의 도토리를 준다는 뜻으로, 잔 술수를 이용해 상대방을 현혹시킴을 일컫는 사자성어는?
- ⑩ 라틴어로 '동근 탁자'를 의미하며, 일반 인구의 상위 2%에 드는 지적능력만을 가입조건으로 하는 국제적인 단체는?
- ⑪ 농촌을 배경으로 토속적인 인간상을 다룬 단편을 주로 썼으며, 대표작으로는 〈봄 · 봄〉 〈동백꽃〉 〈따라지〉 등을 남긴 소설가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세로문제

- ② 〈삼국지〉, 〈삼국지연의〉에서 후한 말기의 군웅(群雄) 가운데 무용(武勇)이 가장 뛰어나다고 묘사되었고, 절개가 없고 물욕이 많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성격을 지닌 인물은?
- ④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궁중 안팎에서 널리 연주되었던 현악기로, 종류로는 향○○와 당○○가 있다.
- ③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이자, 〈레미제라블〉의 저자는? ○○○ 위고.
- ⑥ 그림형제의 〈○○○ 음악대〉는 주인에 의해 학대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이 농장을 떠나 ○○○으로 가서 음악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 ⑧ 1281년(충렬왕)경에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一然)이 편찬한 사서(史書)는?
- ⑨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등장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다.

<봄호 vol.24 독서퍼즐 정답>

		어			한	비	야
		린			용		
리	어	왕		구	운	몽	
		자	서	전			
			정				
박			주		목		
씨					걸	리	버
전	기				이		





골프공엔 왜 구멍이 많은가?



구기(球技) 중에서는 탁구공과 함께 골프공이 가장 작은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골프공 표면에는 두툼두툼한 작은 구멍이가 많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이 구멍이는 영어로는 딴플(Dimple, 보조개, 움푹 들어간 것)이라고 부르는데 모양이 좋으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

이 딴플은 공이 날아가는데 엄청난 함수관계가 있다. 골프채에 맞은 볼은 회전하면서 날아가는데 이 딴플은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볼의 주변 공기의 흐름을 양력(揚力, 떠오르는 힘)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 날아가는 거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골프메이커의 실험에 의하면 딴플이 있는 공과 표면이 매끄러운 같은 무게의 공을 쳤을 때 날아가는 거리는 무려 세 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공의 형태와 모양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 「잡학백과」 중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vol. 2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광주·포천·김포·여주



지난호 정보지는 e-book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happylib.or.kr 열린마당 ▶ e-도서정보지